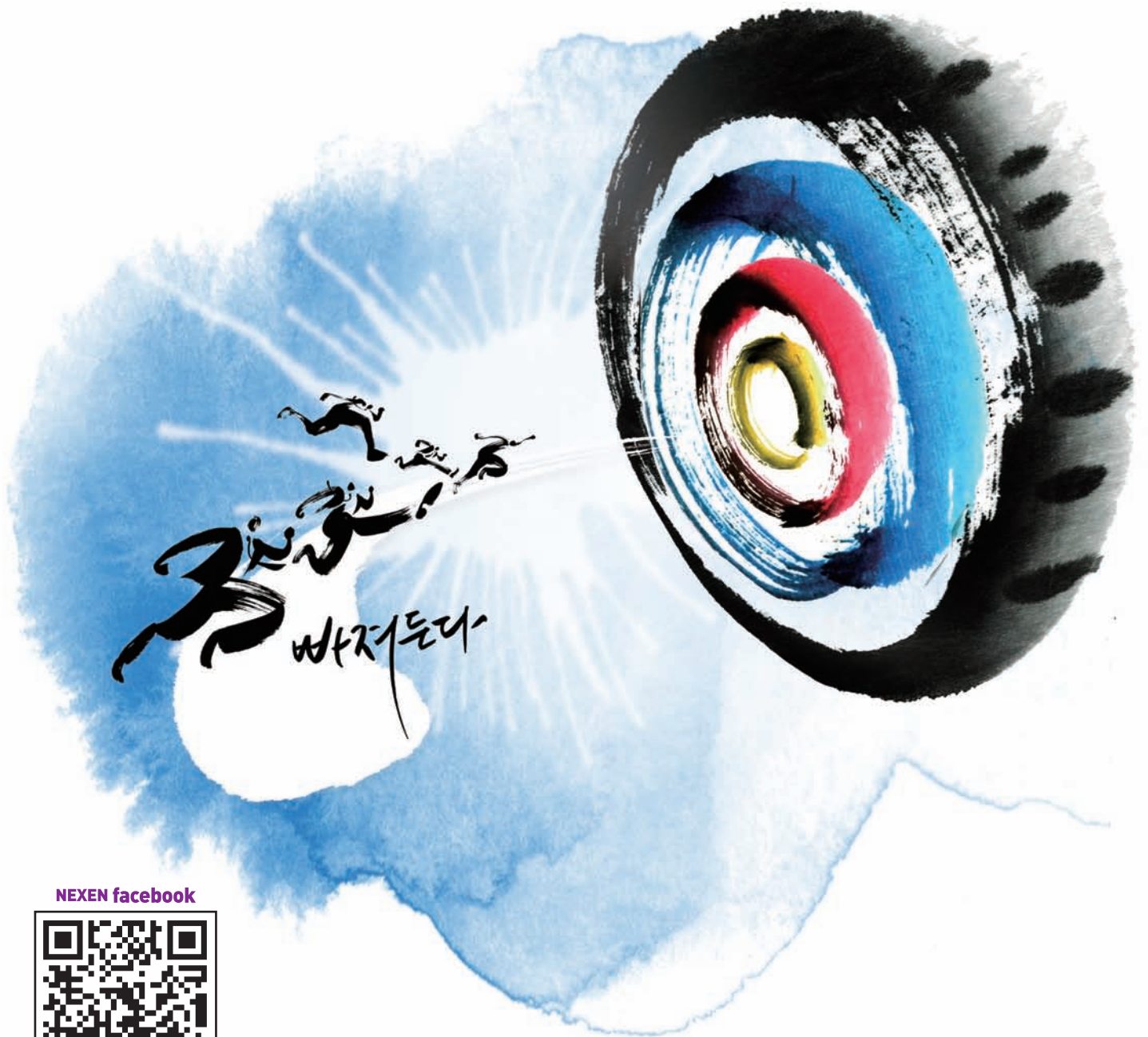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HELLO NEXEN



NEXEN facebook



www.nexentire.com

HELLO NEXEN | Vol.56 2014년 여름호



오 감 으 로 느 끼 는 여 름

눈을 감으면 시원한 바람 냄새가 코를 간질이고
귀를 막으면 철썹철썹 파도 위에 너울대는 갈매기들이 보입니다.
입속으로 찌르르르 매미 소리가 맴돌고
코로는 수풀의 짙은 향 맛이 느껴집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던 생각을 멈추고
온몸으로 여름의 자연을 느껴보세요.
오감으로 더 깊게 느낄 수 있는 여름은
자연이 당신에게 준 또 다른 선물입니다.



표지 이야기

정신일도하사불성(精神一到何事不成),
정신을 한곳에 집중하면 못할
일이 없다는 의미지요.
몰입은 당신이 과녁 한가운데를
정확히 뚫을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이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은 작가의 의견에 따른 것으로 넥센타이어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책에 쓰인 글과 사진을 재사용하려면
〈헬로우넥센〉과 저작권자 양측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을 달리는 내일의 기술 Driving Tomorrow NEXEN

2014년 여름호 통권 56호 | 발행인 이현봉 | 발행일 2014년 7월 1일 | 발행처 경남 양산시 총령로 355
넥센타이어(주) 경영관리팀 | 담당 박수현 (055-370-5283) | 기획 및 디자인 (주)하이미디어P&I (02-
795-3364) | 디자인 백선영, 장윤희, 전명숙, 이예슬 | 사진 (주)유닉하우스 (02-511-9205) | 프로세스
하이테크컴 (02-741-3377) | 인쇄 삼조인쇄주식회사

N value

- 04 Column
혼자 또 함께하는 물입
- 06 Story
집중할수록 빛나는 뜨거운 직업들
- 10 Interview
국가대표 다트선수 박현철
- 14 N Hero
수상스키 마니아 생산관리파트 김중출 사우
- 18 Kids Love
우리 아이 집중력 향상 프로젝트
- 20 Culture
한 번 펼치면 멈출 수 없는 공포 소설

N life

- 24 Drive & Leisure
신라 고찰 표충사와 밀양 여행
- 30 Family Day
설비보전파트 박상용, PCR파트 박준용 사우 가족 목장 체험
- 34 Money Tip
자녀 교육자금 마련하기
- 38 N Mind
나는 이럴 때 가장 공포를 느낀다!
- 40 Food Story
양산공장이 추천하는 이열치열 vs 이한치열 맛집
- 44 Wide Road
80년 공공 감춰진 비밀의 숲, 양산 법기수원지

N company

- 50 Team Story
유럽팀 단체 프로야구 관람
- 54 Cross Class
미주 · 글로벌자원팀 사우들의 크로스 회식
- 58 Happy Together
신입사우들의 집수리 봉사
- 62 Letter Box
'산 친구들'에게 보내는 재료파트 백민수 직장의 편지
- 64 Tire World
넥센타이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 66 Nexen Friends
타이어테크 문현점

News center

- 70 On Air 1
넥센타이어, 새 TV CF 방영
- 72 On Air 2
배우 박상민 창녕공장 방문
- 74 On Air 3
넥센타이어 2014년도 장기 근속자 여행
- 76 Nexen News
넥센 뉴스

- 82 N Voice
헬로우넥센과 通하다

- 83 Epilogue
포토퍼즐 및 당첨자 발표

한쪽에만 있는 마음의 창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비유가 종종 쓰인다.

‘사람의 눈을 통해 마음을 알 수 있다’는 뜻이다.

이는 어느 정도 정확한 표현이기도 하다.

시신경을 통해 눈과 뇌가 직접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즉 눈은 뇌의 일부이니 상대의 눈을 보며 그 사람의

마음이 담긴 뇌를 보게 되는 것이다.

사람마다 눈동자의 색깔은 물론 눈의 모양이나

눈간 거리도 다르지만, 사람의 눈은 정면을 바라보도록

한 쪽 방향으로 배치돼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동물들과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등 뒤를 포기한 호모사피엔스

일반적으로 초식동물의 눈은 머리 양 측면에 달려 있다.

전후좌우 모든 방향의 사물을 볼 수 있어 시야가

굉장히 넓다. 말이나 타조의 경우 시야각이 300도를 넘어

바로 뒤에서 맹수가 다가와도 재빨리 피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사자나 올빼미 등 육지나 하늘의 지배자인

육식동물의 눈은 정면을 향해 있다.

시야가 좁은 대신 공간 감각이 발달해 사물과

환경을 보다 입체적이고 세밀하게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자연의 최대 포식자인 인간 역시 측면과

후면의 시야를 포기하고 전방에 집중한다.

인간 개인의 신체적 능력은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짐승들과 싸우며 생존 경쟁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여럿이 힘을 합쳐 맹수는 물론 더

강한 적들과 맞붙어 대적할 수 있게 됐고 더 어렵고

위험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사회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택한 인류가 전방에만

집중하는 시야를 갖는 건 진화적으로 볼 때 당연한

선택이다. 자신의 등 뒤를 동료들에게 맡기고 주어진

목표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몰입

무한경쟁시대에서 기업 생존의 핵심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거기에 한 가지 중요한 요소를 더하자면

목표에 대한 구성원 개인의 몰입이 있다.

극도의 몰입을 통해 새롭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도

발견하고, 답답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찾을 수 있다.

몰입은 집중보다 한 발 더 깊이 들어간 단계다.

또 온전히 개인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이다. 때로는

집단적인 몰입을 경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다.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무언가 오가는 순간 한 사람의

몰입에는 흠집이 생긴다.

그러나 개인이 몰입하기 위해선 집단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 정면에 비해 취약한 측면과 등을 동료나 팀이

돌봐줘야 한다. 이런 믿음은 반복적으로 쌓인 신뢰에서

비롯된다. 즉 몰입을 위해 ‘몰입을 도울 팀을 만드는 것’

이 중요하다는 소리다. 그동안 인류가 찬란한 역사적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도 단합을 통해 몰입하는

사람의 역량을 최대로 끌어 올렸기 때문이다.

과감히 떠나보는 몰입의 광야

직장에서도 몰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 바로 팀장님에게 다가가 “저 좀 잠시 내버려

두십시오”라고 과감하게 말해보자.

만일 팀장의 위치에 있다면 평생 해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소리일지라도 꼭 참고 마찬가지로 과감히 대답하자.

“그래, 그러자. 난 우리 김 대리를 믿으니까”

그리고 1주, 1개월 동안 신뢰의 시간이 익어갈 때,

또는 팀장의 속이 간장처럼 까맣게 탈 즈음 김 대리의

외롭고 처절한 몰입은 끝이 난다.

물론 그 사이 홀로 또는 특공대를 조직해 광야로

나간 김 대리는 듬직한 사냥감을 둘러메고

팀원들에게 돌아올 것이다.㉞

혼자
또
함께하는
몰입



쉴, 말 시키지 마세요!

집중할수록 빛나는 뜨거운 직업들

미간을 찌푸린 채 자신의 일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은 남녀를
불문하고 매우 매력적이다. 여기에 전문성까지 갖춘다면 금상첨화.
집중해야만 하는, 집중할 수밖에 없는 직업들을 모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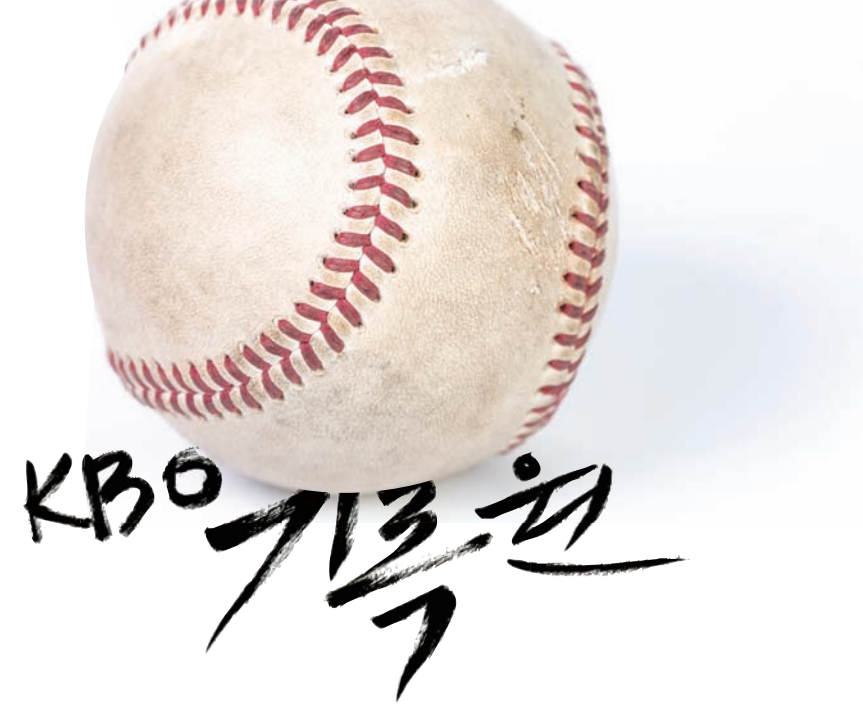


말이 곧 금이다

잘못 내뱉은 말이 천근의 화가 되어 돌아온다는
격언이 있듯, 말로써 양측의 이해관계를
성립시키는 통역사에게 있어 순발력과
집중력은 빼놓을 수 없는 기본 소양이다. 특히
국제회의나 학회에 참석할 경우, 그 나라의
언어는 물론이요 전문 용어까지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2009년 통역사의
실수로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야생 백두산
호랑이를 기증하게 된 사건이 있었다. 한국을
찾은 러시아 차관 일행이 “살아있는 호랑이를
기증하면 야생에서 기를 수 있냐”고 물은 것이
통역 과정에서 “러시아가 한국에 호랑이를
기증하겠소!”라고 잘못 전달이 되었던 것이다.
후에 한국은 러시아에 공식적으로 기증해줄
것을 요청했고, 러시아는 그제야 통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해프닝으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푸틴 대통령은 한·러
수교 2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백두산
호랑이 3마리를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결과적으로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어쨌든 귀한 야생 호랑이를 내어주는
러시아에겐 그리 달갑지만은 않은
상황이었다고.

야구의 모든 것을 기록하다

긴장감 넘치는 야구 경기장에서 심판 외에도
냉정한 눈으로 경기를 관망해야 하는 이가
있다. 이름조차 생소한 KBO 야구 기록원.
기록의 스포츠라 불리는 야구에서 매회 경기를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그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수비가 공을 잡다 놓쳤을 때
안타인지 실책인지, 투수가 던진 공을 포수가
잡지 못했을 때 폭투(Wild pitch)나
포일(Passed ball)이냐를 두고 씨름할 때
기록원의 손끝에 판정이 달려있다. 또한
그 기록에 의해 투수의 방어율도, 타자의
타석수와 타율도 결정되므로 공 하나라
할지라도 절대 허투루 봐서는 안 된다. 때문에
경기 중 화장실에 다녀오는 것도 힘들다고.
보통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록을 위해 한 경기에
2인 1조로 투입되며 두 기록원의 의견이 엇갈릴
때에는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빠른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내린 결정은 심판 판정과 달리 정정되는
일이 거의 없다.



향기를 만드는 사람

소독차 냄새, 락스 냄새, 향 냄새, 비 오는 날
땅이 젖는 냄새 등 남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각기 자신이 좋아하는 냄새가 있기
마련이다. 또한 첫사랑이 쓰던 향수 냄새를
맡고 우연히 설레었던 감정을 다시
떠올리거나, 독한 스킨향을 맡고 아버지를
떠올리는 등 냄새는 단순히 '맡는다'는 행위를
떠나 기억저장소로 들어가는 매개체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렇기에 향을 만들어
내는 조향사는 이미지를 향기로 표현해 낼
만큼 풍부한 상상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다양한 향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향을 맡을 때는 최대한 후각에
집중해야 한다.





남겨진 것은 몇 개의 단서뿐

코난 도일의 소설 <셜록 홈즈>에서 탐정인 홈즈는 추리를 위해 무언가 깊이 생각하거나 고민할 때면 기도하듯 손끝을 모아 자신의 입에 가져다 댄다. 최고의 콤비인 왓슨박사를 처음 만나던 날도 홈즈는 이 같은 포즈를 하고 소파에 누운 채 추리에 몰두할 뿐 질문세례를 퍼붓는 왓슨의 말에는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는다. 몇 개의 단서만으로 범인의 생각과 범죄 과정을 낱알이 간파해야 하는 탐정. 공권력의 부족으로 수사나 조사를 통해 완벽하게 진실을 규명할 수 없을 경우 사각지대를 보충할 수 있기에 최근 그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탐정의 활동이 활발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민간자적협회에서 그 자격을 인정해주고 있다.

그대들의 눈이 되리

앞을 볼 수 없기에 혼자 있는 시간이 더욱더 외로운 시각장애인에게 있어서 책은 무료함을 달래주는 친구이자 세상과 소통하게 해주는 유리창이다. 의학이 발달하면서 선천적 시각장애는 많이 감소하고 있지만, 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후천적 장애는 매년 늘고 있다. 이들이 시각 장애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점자를 익히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면 위에 도드라진 점을 손가락으로 만지면서 읽는 점자는 그 크기와 위치에 따라 의미가 미묘하게 달라지기도 한다. 점역 교정사는 점역프로그램으로 변환된 내용이 일반도서 원본과 맞는지 대조하여 오타와 맞춤법을 교정하는 일을 한다. 보통 점역사라고 불리기도 하며 정확한 단어를 전달하기 위해서 국어와 영어는 물론 수학, 과학, 컴퓨터 등 전반적인 분야의 지식도 필수다. 교정을 마친 뒤에는 지도, 그림 등과 같이 프로그램 전환이 불가능한 문자들을 일일이 송곳으로 작업한다. 무엇보다 점역 교정사들은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며 장시간 집중해서 문자를 교정할 수 있는 인내심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마법을 현실화하다

공중을 걷고, 폭포를 관통하고, 하늘을 나는 제트기를 없애는 등 마술은 판타지 요소인 마법을 현실에서 표현 하는 수단이다. 무대에서 완벽하게 짜여진 동선대로 움직이고 파트너와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절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마술사.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에 쇼를 하는 동안에는 집중에 집중을 더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불의의 사고를 겪는 마술사들도 있는데, 2009년 한 외국 마술사가 물이 가득 찬 유리관에서 탈출 마술을 선보이던 중 유리관의 결함으로 문을 열 수 없게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마술사를 보고 위험한 상황임을 판단한 제작진이 결국 절단기로 유리관 입구를 열어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목숨을 잃을 뻔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전설의 마술사로 불리며 새로운 마술의 영역을 개척했던 해리 후디니는 “마술에는 항상 실수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실수를 마술처럼 보이게 하는 마술사가 가장 유능한 마술사이다”라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관객들 앞에서 실수를 모면하기 위한 마술보다는 완벽한 준비로 사고가 없는 마술이야말로 진정 즐거운 마술일 테다.

매의 눈으로 승패를 판정하다

스포츠경기에 참여해 경기 상황을 파악하고 선수들의 동작을 관찰하는 심판. 공정하고 원활한 경기 흐름을 위해서는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과 선수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는 집중력이 필수다. 또한 새롭게 규정된 규칙과 수많은 심판 사례들을 숙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의 편에도 설 수 없기에 노력한 만큼 주목을 받지 못하고, 판정에 불복하는 선수들과 관중들에게 질타를 받거나 심한 경우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지난해 10월, 한 구민 축구대회에서 경기를 관람하던 관객이 판정에 불만을 품고 경기장에 난입해 심판을 철제 의자로 내리친 사건이 있었다. 그 충격으로 심판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고 피의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경기장에서 보호받을 수 없다면 심판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기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된다. 아름다운 스포츠문화 정착을 위해 판정을 하는 심판도,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도 매너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⑩



국가대표 다트선수 박현철

다트도, 인생도 던졌다 하면 백발백중!

그의 손가락 끝을 떠난 다트 세 발 모두 보드 한가운데에 꽂혔다. 입이 떡 벌어지는 특급 실력.
우문인 줄을 알면서도 백발백중의 비법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우문에는
“연습, 그리고 한 발 한 발에 집중하기?”라는 현답이 돌아왔다.



우리에게 낯(Pub)에서 재미삼아 즐기는 게임으로 더 친숙한 다트. 그런데 여기에 운명을 건 사람이 있다. 바로 프로 다트 선수 박현철. 야구에 류현진이 있다면 다트엔 박현철이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일본에서 한국 다트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선수다. 현재 일본 에이플로우 다이너스티(AFLOW DYNASTY)의 소속으로, 지난해 교토에서 열렸던 다트 챔피언십 JAPAN 16에도 뽐힌 바 있다. 그렇게 정상적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인고의 시간을 보냈을 터. 인생을 통째로 '다트'라는 과녁에 명중시킨 그와 박현철식 물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경기장에서 승패를 가리는 프로 다트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한 스포츠다. 어떻게 프로 다트의 세계에 입문하게 되었나?

나도 취미로 시작했다. 2009년에 바(bar)에서 매니저로 일하면서 심심할 때마다 스태프들과 음료수 내기 다트 게임을 했다. 재미있어서 자주 하다 보니 실력이 늘더라. 그러다가 다트 머신회사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했는데, 이런! (왜?) 첫 출전에 16강에 든 거다. 당시 다트 좀 던진다는

사람들의 경력이 대개 8~9년 정도였던 반면, 나는 1년 만에 국내 랭킹 2위 자리까지 꿰찼다. 타고난 재능도 있었고, 워낙 지는 걸 싫어하는 성격이라 지금의 자리까지 온 것 같다.

국내 선수 중 최고 실력자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에는 국가대표로도 선발되었는데 기분이 어떤가?

선발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덕분이다. 올해 세계다트연맹(WDF) 주최로 열리는 대회에 한국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 오로지 연맹과 선수 사비로 가는 것이라 좀 아쉽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다트계는 많이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한 문제가 당신이 지금 일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과도 관련 있나? 한국과 일본의 다트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다트가 비인기 스포츠라 해외와는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다. 다트 강국인 일본과 영국에는 '다트장'이 있을 만큼 대중적인 스포츠다. 또 국내에서는 프로

Profile

2010 ASIA PACIFIC CUP 한국 대표
D-CROWN 2012 개막전 in도쿄 [G1] BEST 16
D-CROWN 제3전 in교토 [G2] 3위 입상
JAPAN OPEN BEST 8
THE WORLD STAGE5 BEST 8
D-CROWN 제6전 in도쿄 Grade1 교류전 Doubles 준우승
JAPAN STAGE14 효고 JAPAN 16
2013 JAPAN STAGE2 니가타 BEST 8
2013 JAPAN STAGE3 아이치 제3위
2013 JAPAN STAGE4 BEST 8
2013 JAPAN STAGE4 효고 EXHIBITION MATCH 우승
2013 JAPAN STAGE14 쿠마모토 BEST 8
2013 JAPAN STAGE15 교토 JAPAN 16
2014 JAPAN 개막전 제3위



대회가 많아야 1년에 2번 정도인 반면 일본에서는 18회 이상 열린다. 그 규모나 참여하는 선수 인원도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나 역시 예전엔 해외, 특히 일본 선수들의 동영상을 보며 연습하곤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 다트에 관심을 두게 되었고, 더 큰 대회에서 제한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이 커 일본행을 결심했다.



현재 일본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국 다트 선수다. 선례가 없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당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

당시 일본으로 떠나려는 나를 모두가 말렸다. 그곳에서 내가 프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너무도 희박했으니까. 게다가 비자 만료기한이 1년. 그 안에 스폰서를 구하고 프로라이센스를 취득하지 못하면 모든 게 끝이었다. 설상가상의

로 비자 발급 3일 전에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 (거기서 더 불안한 상황이란 게 설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터졌다. 어느 누가 거기로 가족을 보낼 수 있겠나. 그런데 내가 끝까지 고집을 부렸다. 방사능으로 죽어나 다트 못해서 죽어나 똑같다면서. 그 패기로 4개월 만에 스폰서와 프로라이센스 문제를 해결했다.

다트에 인생을 건 사람처럼 보인다. 당신을 이렇게 만든 다트의 매력은 대체 무엇인가?

다트를 던진 직후 손끝에서 가시질 않는 짜릿한 여운? 또 원하는 목표를 맞혔을 때의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뭐, 지독한 승부욕 때문일 수도 있지만(웃음).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 최고조에 달하는 긴장감, 그리고 이 감정을 조절하며 즐기는 것이 다트의 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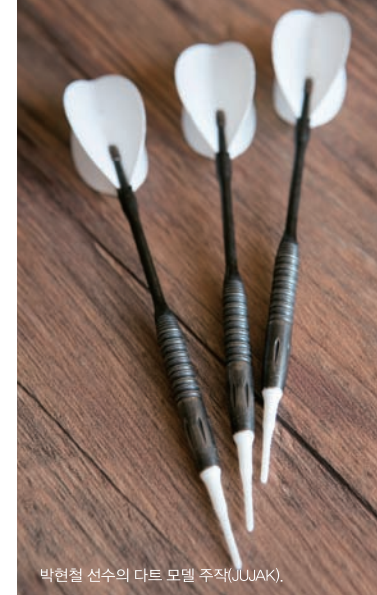
긴장을 조절하는 정신력이 승패를 가리는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말인가?

화살을 원하는 곳으로 던지려면 무게 중심과 회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섬세한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기술을 컨트롤하는 건 정신력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상대 선수, 점수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면 기술적 능력까지 무너져 게임 전체를 망칠 수 있다. 매 순간 내 안의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 극복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스스로 성장함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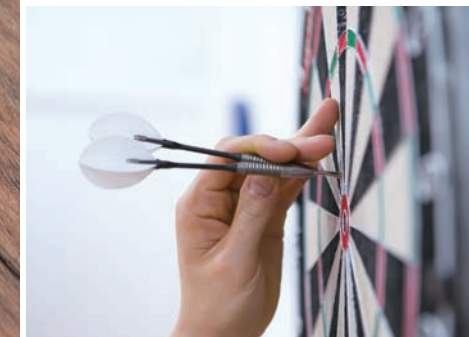
당신이 강조하는 ‘몰입’, ‘집중’의 끝을 맞본 최고의 시합을 꼽자면?

‘다트의 신’이라 불리는 일본 선수 호시노 미츠사마와의 시합이 생각난다. 햇병아리 시절부터 그 선수와 꼭 한 번 붙어 보고 싶었다. 그렇다고 하필 그의 출신 지역인 오사카에서 열린 토너먼트에서 만난 건 원지! 관중석 가득한 오사카 사람들은 이미 호시노가 우승한 듯 응원하더라. 최대한 귀를 닫고 경기에 집중하려 애썼다. 한 발 한 발 던질 때마다 극도로 집중해서 머리로, 심장으로 다 터지는 줄 알았다.

(듣는 사람도 떨린다) 한 발을 놓치면 다음 발은 잡고, 상대도 마찬가지로였다. 5판 3선승제의 마지막 5회에서 이겼다.



박현철 선수의 다트 모델 주작(JUJAK).



결국 다트 기술을 컨트롤하는 건 정신력이다. 훈련을 통해 다져진 내 몸의 감각을 믿고 내 안의 두려움과 맞서야 한다.

축구로 치자면 승부차기까지 간 거다. 게임 끝나고 긴장이 풀려서 엉엉 울었을 정도다. 나는 오히려 불리한 상황일 때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 어떻게든 살아남겠다는 오기가 발동하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몰입하는 능력이 대단하다. 비결이 있다면?

최고의 다트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훈련을 거듭한다. 하루 10시간 이상 훈련한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져진 몸의 감각을 믿으면 된다. 그러면 시합을 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생기고, 몰입도가 높아진다.

진정한 멘탈머리다. 그 정신력으로 어디까지 갈 작정인가!

서 있을 힘이 없다면 모를까, 나이가 들어서 다트를 계속하고 싶다. 지금 세계랭킹 1위 선수도 선돌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일본 프로 무대에서 실력을 갈고닦아 축구계의 프리미어리그라고 할 만한 영국 PDC(Professional Darts Corporation)에 진출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무더위를 가르는 시원한 쾌속질주

수상스포츠에 수영이 필수라는 건
편견. 생산관리파트의 김종출 사우
또한 처음 물을 접할 때는 맥주병이나
마찬가지였다. 더운 여름을 나기에
수상스포츠보다 좋은 운동이 있을까.
거기에 물살 위를 한 마리 날치처럼
누빌 수 있는 수상스키라면
금상첨화다.

Info 부산수상레포츠스쿨
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대로 1182번길 9
문의 전화 김효원 대표 010-7488-2630
홈페이지 cafe.naver.com/sekwatersports

수상스키의 매력은
바로 물맛이죠!



여름과 어울리는 수상스키만의 매력

수상스키 경력 20년의 김종출 사우는 이 스포츠의 가장 큰 매
력에 대해 ‘물살을 헤치고 나갈 때의 묘미’라고 설명한다. 바
람과 물을 온몸으로 받으며 빠른 속도로 강을 가로지르는 맛
은 그 어떤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또 남들은 잘 하지 않
는 이색적인 취미라는 데에도 이유가 있다.
수상스키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스포츠다. 내리쬘는 땀별을
피해 그늘로 그늘로 숨어도 강이나 바다만한 쉼터는 사실 없
다. 물 위를 달리다 힘이 부치면 손잡이를 놓고 물속으로 풍
당 빠지면 된다. 더위에 지쳐 연신 부채질을 하고 있는데 물
속에 들어가 준비하던 김종출 사우가 “발이라도 잠깐 담그실
래요?”라며 너스레를 떠난다.
친한 동생이자 제자인 부산수상레포츠스쿨 김효원 주임이
모터보트 핸들을 잡고 뒤를 돌아보자 김 사우가 “Go”라고 외
쳤다. 시끄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보트가 앞으로 나가고 한
발에 수상스키를 착용한 그가 물위로 떠올랐다. 이리저리 움
직이며 물보라를 만드는 그에게서 섹시미가 물씬 풍겼다.
수상스키는 운동량이 엄청난 스포츠다. 단순히 보트에 몸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 같아도 손과 허리, 다리에 많은 압박이
간다. 올해 들어 처음 수상스키를 타는 것이라는 김 사우는
오늘 사보 촬영을 위해 며칠 동안 자전거를 타며 체력을 만들
었다. 1분 남짓 달리던 김 사우가 손잡이에 깊숙이 팔을 집어



물살을 온몸으로 받으며
강을 가로지르는 맛은
그 어떤 운동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넋고 관절에 손잡이를 걸쳤다. 잠시 손을 쉬게 하는 동작이다. 숨을 고른 그가 손가락을 허공에 돌리자 이내 모터보트가 방향을 틀었다.

코스를 두 번 반복하고 올라온 김종출 사우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턴할 때 잘 찍으세요. 그게 포인트입니다”라고 촬영 팁을 알려줬다. 방향을 크게 바꿀 때 물보라가 세게 올라오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장면엔 경탄하며 셔터를 누른다고. 잠깐 쉬고 두 번째로 물에 올랐을 때 그가 말한 부분을 유심히 살폈다. 대회전을 하며 급선회를 하자 그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은 물줄기가 솟아올랐다.

한 마리 물고기처럼 물 위를 누비던 그에게도 익숙지 않은 것이 있었으니, 바로 사진촬영. 사진을 찍으며 계속 웃으라고 말했지만 김종출 사우에겐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바로 자연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이다. “주위에서 오늘 근무 빠지고 놀러 간다고 오해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산 남자한테 웃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어색해 죽겠습니다.”

“표정 좀 지어보세요”라고 말했지만 거센 바람에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어 보였다.

까다롭지만 한번 물 위에 서면 ‘꿀’

사실 수상스키가 레저스포츠로 널리 퍼져있지 않은

건 일반인이 접근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일단 비용이 만만찮다. 스키를 타려면 모터보트가 꼭 필요하고 연료 값도 상당하다. 수상 스포츠용 수트나 스키를 장만하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든다. 장소 또한 까다로워 파도가 심한 곳에서는 타기 힘들다. 기술적인 부분도 만만치 않아 김종출 사우 역시 초반엔 애를 먹었지만 수상스키에 대한 열정으로 극복했다고.

“여러 번 본체 옆에 달린 봉을 잡고 감각을 익힌 뒤에야 보트 뒤에 설 수 있었지요. 몸을 최대한 웅크려 저항을 줄여야 합니다. 한 번만 제대로 올라와도 계속 올라올 수 있어요. 물 위로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손잡이를 놓으면 물로 가라앉으며 스키가 끝나는데, 이때 앞으로 힘차게 굴러야 혹시 모를 부상을 피할 수 있다.

맥주병 꼬꼬마, 마도로스 되다

맥주병 꼬꼬마였던 그가 물과 친해진 건 고등학교 때다. 수영을 배우며 흥미가 생겨 해양수상반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수상스포츠를 즐기게 됐다. 결국 해양스포츠 강사는 물론 원양어선까지 탈 정도로 물과 친해졌다. 수상스키로 방송에 나온 적도 있다고. 김종출 사우가 물을 떠날 수 없는 건 오랫동안 수상스포츠를 즐기며 받은 ‘바닷사람’이 됐기 때문이다. 옆으로 타는 수상스키인 웨이크보드는 물론 모터보트나 요트 등을 다루는 데에도 능숙하다. 얼마 전에는

필리핀에서 동료들에게 스쿠버다이빙을 가르쳤을 정도다.

입도 짧고 운동도 좋아하는 그는 좀처럼 살이 찌지 않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걱정되어 지난해부터는 살집을 키우기 위해 집에서 계란을 몇 개씩이나 삶아먹는 등 많은 노력을 쏟고 있다고.

“작년에 비해 8kg이나 늘었어요. 사람들이 이제야 좀 볼만해졌다고 말합니다”

몸이 건강한 사람은 마음도 건강하다는 말처럼 수상스키로 금요일 오전을 꽉 채운 그에게겐 피곤한 기색은 커녕 활기가 넘쳐났다. 김종출 사우의 이런 에너지는 넥센타이어를 멈추지 않고 돌아가게 하는 윤활유가 될 게 분명하다.🏆



엄마, 갑자기 공부가 잘 돼요

우리 아이 집중력 향상 프로젝트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은 지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화장실 간다고 나오더니 다시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엄마, 나 주스 좀...”하면서 뺨뺨 얼굴을 내미는 아이. 누굴 닮아 집중력이 없는 건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한숨만 늘어간다.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 집중력을 늘릴 수 있을까?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의 아델 다이아몬드 교수에 따르면 업무나 학업을 수행하는 능력은 IQ보다 집중력에 달렸다고 한다. 집중력 훈련을 실시한 아이들이 일반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받은 아이들보다 읽기, 산수, 말하기 등 모든 교과 과목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 그러니 집중력 이야말로 성공의 열쇠인 셈이다. 그런데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 숙제를 펴놓고 1분도 안 돼서 종이 찢어 한다. 이런 아이 그냥 놔둬도 좋은 걸까. 다행히 IQ와 달리 집중력은 노력을 통해 충분히 향상될 수 있다. 우리 아이 집중력 딱딱 늘려주는 방법에 주목해보자

‘싫어, 몰라’하지 말고 왜 그런지 말해볼래?

무조건 책상 위에 앉으라는 말은 아이에게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에게 중요한 것도 동기.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려는 의지가 생긴다. 아이가 숙제를 하지 않으려 할 때나 공부에 의욕을 느끼지 못할 때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 후에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를 아이에게 말해주며 대화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좋다.

정돈된 환경으로 마음을 차분하게

아이는 숙제를 해야 하는데 TV 화면에는 뽀로로가 손을 흔들고, 책상 위엔 온갖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고, 컴퓨터에선 게임 사운드가 흘러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숙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있을 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TV나 컴퓨터는 멀리하고, 책상 위는 잘 정돈해서 아이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환경을 조성해보자. 또한 숙제하는 시간, 노는 시간을 따로 정해서 아이가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맞은 칭찬으로 성취감 UP!

산만하고 말을 듣지 않는 아이를 혼만 내고 있지는 않은가? 아이는 혼나는 상황을 관심으로 받아들이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을 바꿔보자. 아이에게 부정적인 관심이 아니라 긍정적인 관심을 보이는 것. 바로 칭찬으로 아이를 이끄는 것이다. 아이가 잘한 일이 있을 때는 따뜻한 표정과 말로 확실히 칭찬을 하자. 거기에 덧붙여 눈에 보이는 칭찬표를 만들면 아이의 성취감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 아이와 상의하여 칭찬할 행동을 정하고 목록으로 만들어보자. 아이가 칭찬할 만한 행동을 할 때는 칭찬표에 스티커를 붙여주고, 그 스티커가 10장 혹은 20장 등 일정하게 모이면 상을 주기로 아이와 약속을 하자. 스티커와 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아이의 의욕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약속한 것을 확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건강을 관리해야 집중도 딱딱!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잠을 잘 땐 기억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집중력 역시 저하된다. 잠이 부족한 경우엔 능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그러므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아이가 충분히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깊은 수면을 위해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먹을거리 역시 집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의 모발은 납 오염이 3배 정도 심하고 미네랄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체내의 불균형한 영양 상태가 아이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것이다. 그러니 균형 잡힌 식사는 아이들에게 필수적이다. 칼슘이 많은 토란, 비타민이 풍부한 초록잎 채소, 과일이 충분히 포함된 식단으로 아이들의 부족한 미네랄을 보충하자.

한편 한방에서는 아이들이 산만한 이유가 심장에 열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아이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패스트푸드는 체내에 열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많이 들어 있다. 가공식품 위주의 식단은 집중력을 흐뜨리는 원인인 것이다. 아이들이 선호하는 가공식품을 간식으로 주고 있다면, 당장 고구마, 감자, 옥수수나 과일 또는 직접 만든 요리로 대체해보자.④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만으로도 아이의
의욕과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

오싹한 번 펼치면 멈출 수 없어!

바야흐로 빙수와 공포물의 시대가 돌아왔다. 더운데 야외 돌아다니다 정수리 태우지 말고 시원한 방 안에서 무서운 소설을 읽어보자. 무시무시한 사건과 괴담에 몰입하다 보면 어느새 선풍기를 끄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특급방법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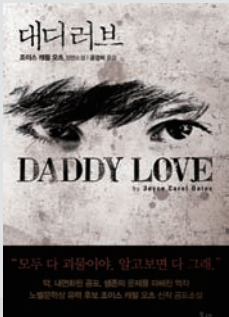


서스펜스와 스릴이 버무려진 단편집

얼음 폭풍

황희 지음
손안의책, 1만2천 원

남의 마음을 읽는 초능력자, 인간의 자유를 느끼는 좀비, 살인마 못지않은 사악한 여자, 자연재해, 광신도, 사라지는 아이들 등의 다양한 소재로 작가는 일상과 비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현대적인 공포 감성을 세련되게 풀어내고 있다. 종잡을 수 없는 캐릭터들은 귀신이 등장하거나 피가 튀거나 신체를 절단하지 않아도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독자를 작품 속으로 끌어들인다. 공포 장르를 통해 작가 본인이 살고 있는 미국을 배경으로 이민자들이 겪는 애환과 부조리함을 표현한 작품 4편과 한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 3편이 촘촘히 엮여 있는 미스터리 단편집.



인간 내면 깊숙한 곳의 공포감

대디 러브

조이스 캐럴 오츠 지음, 공경희 옮김
포레, 1만3천 원

젊고 지적인 엄마와 인기 있는 라디오 디제이 아빠를 둔 호기심 많고 똑똑한 다섯 살배기 아들 로비. 엄마와 함께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우리 차 찾기'를 하던 중 이들을 주시하던 한 남자가 다가와 순식간에 로비를 차에 태워 도망친다. 로비를 유괴한 범인은 자칭 공예가. 시간제 목사이자 지난 수년간 아이를 납치해 성적으로 학대하고, 아이가 자신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됐을 때 가차 없이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러 온 소시오패스다. 유괴범은 로비에게 새로운 이름을 정해주고 이들은 기묘한 유대와 공생을 시작한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커다란 상실감과 학대에 억눌린 아이의 자아분열 과정,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아이의 흔들리는 미래는 인간 내면의 어둠과 공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추리와 민속학적 괴담의 독특한 접목

미즈치처럼 가라앉는 것

미쓰다 신조 지음, 권영주 옮김
비체, 1만4천 원

괴담을 채집하며 전국을 방랑하는 소설가 도조 겐야가 신비로운 물의 신 '미즈치 님'을 경외하는 어느 산골 마을로 향한 와중 맞닥뜨린 밀실 살인. 13년 만에 열린 기우제 의식 중에 신님이 눈을 부릅뜬 채 사체로 발견된다.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호수 밀실 살인 사건인 것. 그 후 여러 신사를 책임지는 신님들이 줄줄이 죽어 나가고, 도조 겐야의 사건 추리가 시작된다. 살인사건 자체는 일반 추리 소설의 소재와 다를 바 없어 보이지만 일본의 독특한 문화인 '신사'에서 벌어진 일로 일본의 민속적·토속적인 특색이 더해져 기묘한 흥미를 풍기는 작품이다.



미지의 존재, 기억에 없는 시간

수훈

감성현 지음
네오픽션, 1만2천 원

'훈을 나르다'라는 의미의 수훈! 수훈인들은 자신의 영혼을 타인의 몸속에 집어넣어 장난처럼 범죄를 저지르고, 타인을 폭행하며, 돈을 훔쳐 달아나고는 조용히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혼란스러워진 세상을 즐기며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계의 의미를 붕괴시키는 게 목적인 이들에게서 인간에게 내재된 폭력성과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어느 도심에서 일어난 급발진 사고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연고도 관련도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사건 사고의 옴니버스식 나열과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용의자들의 한결같은 진술로 독자의 집중도를 한층 높인다. 또한 지면의 여백을 능수능란하게 활용해 독자로 하여금 한 편의 짜임새 있는 영화를 보는 것 이상으로 소설을 '경험'하게 한다.



일상 속 무서운 이야기의 집합체

귀담백경

오노 후유미 지음, 추지나 옮김
북홀릭, 1만2천 원

학창시절에 누구나 학교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오싹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귀담백경>에는 작가가 독자들로부터 두고 받은 짝막한 괴담 사연에 본인이 창작한 몇 편을 가미한 총 99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다. 학교 안 동상이 가리키는 곳에서 일어나는 사고 괴담부터 옛 저택에 전해 내려오는 지옥의 광경에 관한 이야기까지 작가가 선별한 괴담을 즐기다 보면 어느새 더위가 달아나 있을 것이다. '백가지 귀신 이야기'라는 제목과 달리 이 책엔 99가지 이야기만이 실려 있다. <귀담백경>과 독특하게 연결되며 동시 발간된 <잔예>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은 팁.



기적과 공포, 즐거움의 세계

조이랜드

스티븐 킹 지음, 나동하 옮김
황금가지, 1만3천 원

이 이야기는 노인이 된 주인공 데빈 존스가 1973년을 회상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당시 스물한 살 대학생이었던 그는 여자친구에게 상처받고 놀이공원 조이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 그리고 '공포의 집'이라는 시설에서 4년 전 젊은 여성의 시체가 발견되었으며 결국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흐지부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작가는 조이랜드에서 벌어지는 운명적이고 기적적인 사건들 그리고 살인 사건의 진상이 풀리는 과정을 긴장감 있고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생생하게 그려진 놀이공원 풍경에 초자연적 요소가 더해져 소설의 몰입도를 배가시킨다.📖



행동

양산공장 전경

양산공장은 경남 창녕공장과 중국 청도공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과 동시에 공장의 선진화 프로젝트 추진 등 최고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RE 전문 공장입니다. 글로벌 TOP 기업으로의 부상을 위해 넥센타이어는 오늘도 힘차게 전진합니다.



하루여도, 이틀이어도 그렇게 머물다 반해버릴 ‘밀양’

1300년 신라의 고찰 표충사로 향하는 그 길

이름 때문일까. 한 여름 태양은 밀양을 오래토록 비춘다. 벌이 뻑뻑이 들어차 있는 곳, 밀양(密陽). 뜨거운 태양을 피할 길 없어 보이는 이곳엔 고요하고, 내밀한 그 무엇이 있다. 그래서 영화 <밀양>의 이창동 감독이 이 몽롱한 고장을 ‘시크릿 선샤인(Secret Sunshine)’이라 불렀는지 모른다. 밀양의 여행지는 대도시의 어느 일상처럼 북적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며 오는 사람들을 반긴다. 그래서 때론 고향 같고, 낭만이 있으며, 나만의 아지트를 꿈꾸게 만드는 곳이다. 뜨거운 여름, 밀양의 그 비밀스런 태양을 찾아 떠나보자.



반짝이는 하천과 억새 물결,
길가를 호위하는 가로수가
한 떨기 꽃잎 같은 아련함과
낭만을 더한다.

바람이 되고픈 날 우리는 달린다

밀양 여행의 첫 장소는 재약산 아래 자리 잡은 사명대사의 호국성지 1300년 신라의 고찰 표충사다. 표충사가 있는 재약산은 '영남 알프스'라 불리는 명산들의 중심에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으로 사시 사철 색다른 묘미를 풍긴다.

경상남도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표충사로 향하는 길은 굽이굽이 흐르는 단장천과 시전천을 따라 간다. 표충로 13.2km를 따라가는 드라이브 코스는 어느 때고 평온함을 주는데, 반짝이는 하천과 억새물결, 길가를 호위하는 가로수가 책꽂이 사이 한 떨기 꽃잎 같은 아련함과 낭만을 더한다. 가족나들이, 연인의 데이트코스, 때론 혼자여도 좋을 드라이브길이다. 나무가 만들어낸 숲길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고, 바람 살랑대는 그 날엔 자동차 창문을 활짝 열고 마음껏 피톤치드를 마셔도 좋겠다.

재약산 암봉 아래 고즈넉한 표충사

표충사의 여름은 초록의 계곡에서 쏟아져 내리는 하얀 물줄기가 장관이다. 가쁜 숨을 고르고, 산을 오르다 보면 '흑룡폭포'와 '금강폭포'를 만날 수 있다. 첫 번째로 만나게 될 폭포는 '흑룡폭포'. 까마득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의 웅장함이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발길을 절로 멈추게 한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겨 표충사로 들어가 보자. 오랜 역사를 짐작케 하는 고목 사이로 표충사 일주문을 지나 수충루에 들어서면, 재약산 암봉들이 푸른 하늘을 찌르고 있다. 사천왕문을 조심스레 머리 숙이고 들어가면 3층 석탑이 마당 가운데 절과 석가모니를 수호하는 모습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다. 아! 뜨거운 여름이 와도 고즈넉함에 그 온도를 낮춰버릴 풍광이다.

표충사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되어 있다. 표충사로 명명되기까지 여러 차례 절의 이름이 바뀌었다. 신라 무열왕 원년(654) 봄에 원효대사가 지금의 극락암 자리에 작은 암자를 짓고 수도하던 어느 날 아침, 재약산 기슭을 바라보니 대밭 속에서 오색의 상서로운 구름이 떠올랐다고 한다. 원효는 곧바로 하산하여 그 자리에 절을 세우고 죽림사라고 이름을 지었다. 지금도 그 흔적이 절 뒤 대밭 속에 남아 있다.

출출할 때 여기 어때?

하원담(055-352-0081)은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고기를 손질하는 게 특징이다. 이곳의 국내산 한우에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특유의 향이 있다고. **미노파스타**(055-354-7300)는 파스타 전문점으로 봉골레파스타가 일품이다. 깔끔하고 아기자기한 인테리어로 여자들에게 안성맞춤. 장어구이 전문점 **아랑식당**(055-355-3895)은 쫄깃하고 달짝지근한 장어와 스무 가지가 넘는 반찬이 환상적인 궁합을 이룬다.





천혜의 등반요새 ‘부영새 바위’

표충사에서 자동차로 10여 분 떨어진 곳엔 2년 전 4년 만에 재개장한 ‘부영새 암장’이 자리하고 있다. 천혜의 등반요새로 알려진 이곳은 높이 30미터, 폭 50미터의 변성암바위다. 중상급자 클라이머들이 자주 찾는다. 그 아래 널찍한 터에서 야영도 가능한데, 캠프 사이트에서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주말을 보내기에 적합하다. 부영새 암장에서 10여 분 떨어진 단장천 개울가에 발을 담그고 아이와 물놀이를 해도 좋겠다. 인근 주민들의 여름철 최고



의 피서지가 되는 곳이다. 평상이 설치되어 있으니 먹을거리를 싸가지고 가보자.

한여름에도 오싹한 얼음골

밀양은 10만 인구의 소도시이지만 관광명소가 도처에 널려 있다. 그래서 자동차로 다니기에 안성맞춤이다. 밀양 8경으로 꼽히는 영남루 야경, 사례 호박소, 표충사의 사계, 월연정 풍경, 위양못 이팝나무, 만어사 운해, 종남산 진달래, 재약산 억새 등 어느 하나 발길을 사로잡지 않는 곳이 없다. 특히 밀양의 3대 신비 중 하나인 ‘얼음골’은 서울에서도 한결음에 찾아오는 멋진 피서지다. 얼음골은 한 여름에도 계곡에 얼음이 얼어 붙여진 이름. 산속 동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에어컨보다 더 시원해, 이곳을 찾은 사람들의 입에선 ‘춥다’는 말이 종종 들린다.

경상남도 최고(最古) 공립박물관

밀양에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오래된 공립박물관이 있다. 아이와 함께 하는 여행이라면 밀양시립박물관을 빼놓지 말고 둘러보자. 자연과 더불어 역사를 배우며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시립박물관은 영남지방의 전역을 휘돌아 남해로 들어가는 낙동강 하류유역의 문화와 역사를 담아 총 8,200여 점의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 전시하고 있다. 선비의 고장이라 불리는 밀양답게 각종 그림과 글씨, 옛 문서와 목판인쇄물, 조각과 공예품이 다양하게 전시되어 있다. 또, 해마다 5월이면 열리는 밀양의 축제인 ‘아랑제’의 주인공, 아랑의 전설을 보다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 좋다.



밀양향교

박물관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밀양향교가 위치해있다. 밀양향교는 1100년경 고려시대에 창립되었고, 임진왜란 때 불타버린 것을 1602년에 중건한 것이다. 향교에 도착해 풍화루만 보고 발길을 돌린다면 밀양향교를 제대로 못 본 것. 향교로 들어가는 입구는 사택의 마당을 통과해야만 한다. “향교를 둘러보러 왔습니다”라고 소리 지름과 동시에 문 옆에 걸려있는 ‘열쇠’를 찾는 일이 첫 번째 임무다. 밀양 향교는 문을 직접 열고 닫아야 하는 셀프서비스. 밀양향교 풍화루 위에서 바라보는 손씨고가의 기와집 풍경은 마치 과거로 돌아간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다 둘러보았다면 열쇠를 제자리에 두는 것까지 마무리 한 후 “잘 둘러봤습니다”

라고 외치면 향교여행이 완성된다.

하루여도, 이틀이어도 그렇게 머물다 반해버릴 밀양여행. 뜨거운 한여름에도 밀양의 바람은 늘 우리 곁에 있다. 사랑거리는 바람이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을 간지럽히면 풍경소리가 귓가에 찰랑이는 것처럼 그렇게 밀양은 은은히 이 여름을 채울 것이다. ¹⁰

Info 표충사 역사여행 따라잡기

흑룡폭포 → 일주문 → 수충루 → 부영새 암장 → 얼음골 → 밀양시립박물관 → 밀양향교
문의 표충사 055-352-1150, 밀양시립박물관 055-359-5589
museum.miryang.go.kr





설비보전파트 박상용, PCR파트 박준용 사우 가족의 목장 체험

갓 짜낸 신선한 우유 맛 한 번 보실래요?



설비보전파트의 박상용 사우가 결혼 10주년을 맞이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다. 바로 단란한 가족들과 함께 사보에 출현하는 것. 날 맑은 일요일, 인근 목장으로 향한 나들이에 PCR파트에서 근무하는 동생 박준용 사우 가족도 함께했다.

하늘도 도와준 피크닉

며칠 전만 해도 비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소풍 당일이 되자 하늘도 높고 햇볕도 쨍쨍 내리쬘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아이들은 자연이 그리웠던 듯 목장 한가운데 펼쳐진 잔디밭을 신나게 내달렸다. 박상용 사위의 아들인 규환, 규찬이와 박준용 사위의 두 남매 규리, 규택이는 사촌이지만 친형제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친한 사이다.

오늘 두 가족이 할 체험은 바로 '목장체험'. 소들에게 풀을, 송아지에게 우유를 주고 요구르트를 시식하고 또 신선한 우유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들어보는 내용이다. 내화체험목장의 강경화 사장이 직접 만들었다는 유기농 요구르트를 먼저 내오자 아이들의 눈이 둥그랗게 커졌다.

테이블에 오붓하게 모여 요구르트를 시식하자 강 사장이 목장과 젖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

“젖소의 임신기간은 280일 정도고, 세쌍둥이까지 낳을 수 있어요. 또 이곳의



젓소들은 모두 암소이며 비슷한 연령대의 소들을 같은 우리에 몰아넣죠. 황소뿐 아니라 젓소까지 모든 소가 뿔이 나는데 서로 부딪히다 상처가 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제각양고를 발라주곤 합니다.”

가족들은 모두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라도 빠뜨릴세라 새겨듣기 바쁘다. 강 사장은 이렇게 가족 단위로 오는 손님들이 제일 반갑단다. 산 깊숙한 곳에서 목장을 운영하다 보니 바깥손님들의 방문에 반가운 마음이 드는 것이다. 또 이렇게 교육 차원으로 오는 가족들은 부모님이 알아서 아이가 어지럽힌 것들을 스스로 청소하게끔 하니 운영자 입장에선 감사하다고.

욕심쟁이 소들에 먹이 잘 주는 방법은

강의가 끝나자 소들에게 풀을 주는 시간이 이어졌다. 가족들이 우리 앞으로 다가가자 소들이 먹이를 줄 걸 안다는 듯 줄을 지어 고개를 내밀었다. 규찬이가 풀 주기를 주저하자 박상용 사우가 아이를 번쩍 안고 소를 만져보게 했다. “괜찮아. 소는 윗니가 없어서 물지 못해.”

식사용으로 바로 앞에 건초를 깔아 놓았지만 소들은 아이들이 주는 성조만 탐내는 눈치다. 박상용 사우의 부인 정기옥 씨와 동서 장윤주 씨는 무리 중에 대장이라는 커다란 소를 보더니 “카리스마 있네요. 멋있다”라고 감탄했다. 풀 주기가 끝나자 우유 주기가 이어졌다. 아이들이 젓병을 내밀자 새끼소들이 경쟁하듯 몸을 부딪치며 꼭지를 빨았다. 박준용 사우는 식탐 많은 한 송아지 때문에 다른 소가 한 방울도 못 먹자 빈 통으로 유인했다.

이어 가족들은 목장 곳곳을 가득 메운 식물들을 구경했다. 목장에는 유채꽃밭은 물론 수국과 수수꽃다리, 매발톱, 연리지 소나무까지 있었다. 매실나무를 소개하자 박상용 사우는 “숙취 해소용? 귀가 솔깃해지네”라며 웃었다.

1시간 반 밖에 못 잤다는 박준용 사우도 오랜만의 가족 나들이가 반가운 듯 연신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의 바깥나들이에
잔뜩 신이 난
두 가족의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신선한 우유로 직접 만드는 목장표 아이스크림

마지막 체험 코스는 신선한 우유로 직접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 양재기에 얼음과 소금을 7대 3으로 부은 뒤, 그 위에 다시 작은 그릇을 올려두고 우유를 채운다. 거기에 딸기, 초코 시럽 등을 넣고 10분 정도를 저으면 우유가 점점 얼며 아이스크림이 된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싫다고 툴툴대는 규찬이를 엄마 윤주 씨가 “좀 있다가 규찬이 거랑 바꾸자”라며 달랬다. 아이 대신 땀을 뻘뻘 쏟으며 숟가락을 돌리던 박상용 사우는 “노동이네 노동. 그냥 사먹는 게 낫겠다”라며 웃는다.

아쉽게도 체험은 어느덧 끝이 나고, 아이들은 목장에서 선물로 받은 색연필이 마음에 드는지 손에 들고 한참을 살폈다. 살랑이는 바람이 상쾌한 교외에서의 즐거웠던 하루. 형제들은 우애를, 가족들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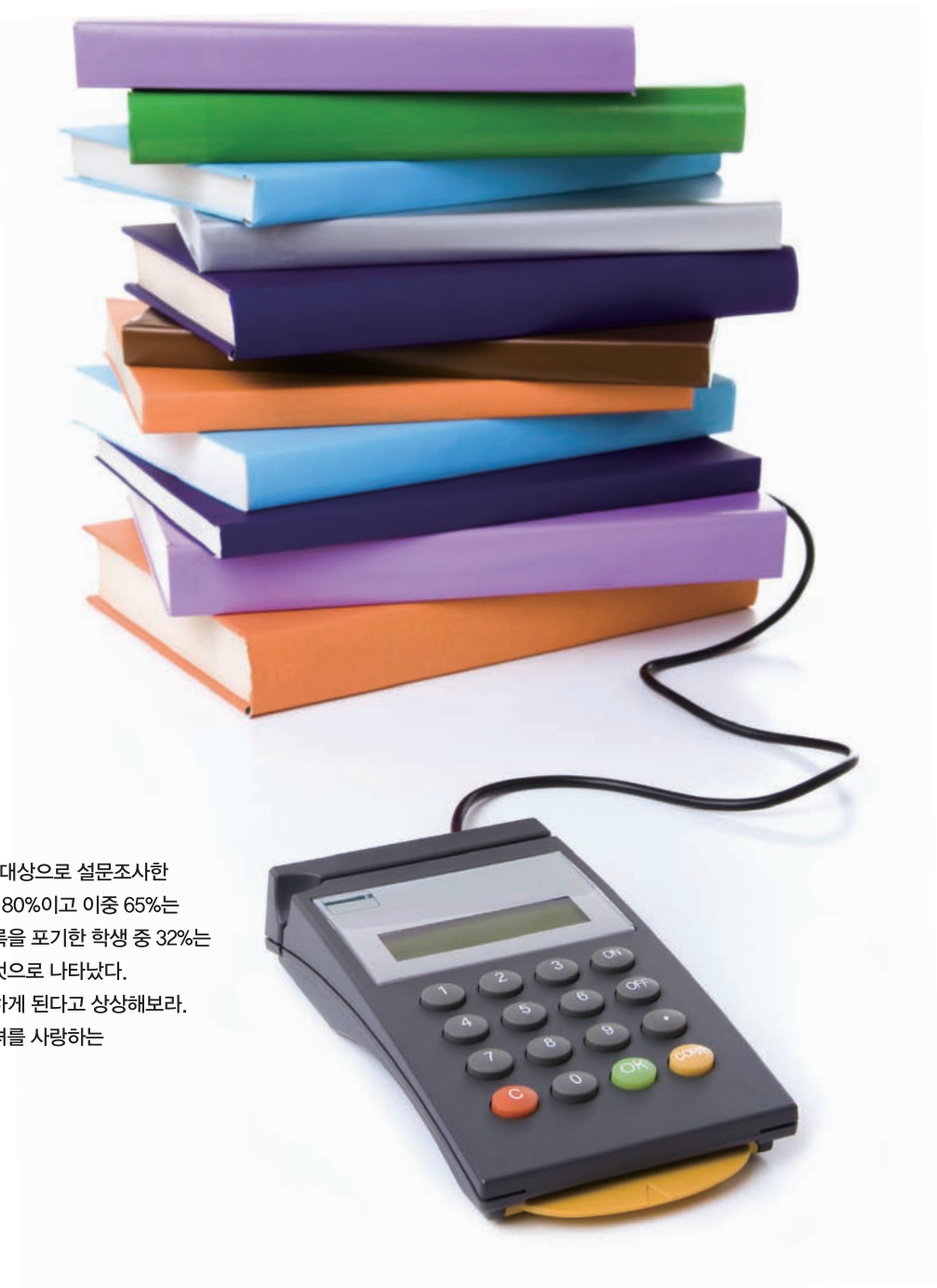


Info 내화체험목장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원동면 내화절골길 110
문의 전화 010-8502-2449
체험 프로그램
기본체험(송아지 우유 주기+소 건초 주기+아이스크림 만들기+요거트 시식하기) 15,000원
치즈체험(치즈 만들기) 10,000원
피자체험(치즈 만들기+피자 만들기) 15,000원
목장체험(기본 체험+피자 만들기) 30,000원

미리미리 준비 하는 미래

자녀 교육자금 마련하기



얼마 전 한 취업포털사이트가 대학생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1학기 수업을 등록할 예정인 학생은 80%이고 이중 65%는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한다고 답했다. 수업 등록을 포기한 학생 중 32%는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휴학의 이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 자녀가 등록금이 없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상상해보라. 교육자금 마련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첫 걸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이 교육비에 허리 휘는 엄마들

‘워킹맘’ A씨는 열한 살 딸을 국공립 초등학교에서 사립 초등학교로 전학시켰다. 국공립 초등학교는 하교가 빠른데다 학부모 참여가 많아 A씨에게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립으로 옮긴 뒤 연 1,000만 원을 훌쩍 넘는 수업료 때문에 생활비를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야했다. 매월 40만 원씩 내는 피아노와 영어 학원비까지 감안하면 A씨는 딸 교육비로 연봉의 절반 정도인 1,500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

올해 마흔 둘인 B씨는 늦깎이 장가를 가서 이제야 첫 아들을 얻었지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들이 20년 뒤 대학에 입학할 땐 이미 회사 정년을 넘어서 등록금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요즘 회사가 어려워져 구조조정을 할 것 이란 얘기까지 돌면서 벌써부터 아들 교육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다.

에듀푸어, 기러기 아빠 남 얘기 아냐

A씨와 B씨의 이야기는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다. ‘에듀푸어(edupoor:education과 poor의 합성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할 정도로 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다. 자녀학원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든 전업주부, 자녀를 유학 보내고 홀로 한국에 남아 교육비를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자녀 학원비 마련을 위해 취업전선에 뛰어든 전업주부, 홀로 남아 교육비를 송금하는 ‘기러기 아빠’도 남 얘기가 아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해 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관련 부채규모는 28조4,000억 원에 달한다. 1년 새 3조1,000억 원, 12.3%나 불어났다. 이 기간 전체 가계부채 증가율이 6%인 것을 감안하면 교육비 부채는 전체 가계 부채보다 두 배의 속도로 불어난 것이다. 특히 교육비 대출의 41.9%가 비은행권 대출이어서 금리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자녀들 교육에 아예 신경을 끄겠다는 학부모가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당장 교육비에 대한 총체적 점검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학자금 대출 부담을 떠넘기게 되거나 노후까지 불안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교육자금마련 위해 명심할 세 가지

전문가들은 교육비 마련 계획을 짤 때 3가지 원칙을 세우라고 조언한다.

첫째, 교육관을 정립하라. 자신의 가계사정에 맞고 자녀들의 성향에 맞는 교육방법을 우선 찾아야한다. 남들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사교육 열풍’에 휘말렸다가는 가족이 모두 불행해지는 결과를 맞게 된다. 교육비를 줄인다고 해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자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투입 비용 대비 교육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육비도 ‘시(時)테크’하라. 부모가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할 때는 약간 무리하더라도 교육비를 부담해낼 수 있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해가는 속도와 반비례해 부모의 사회 경쟁력은 떨어진다. 만약 조기퇴직이나 명예퇴직을 당한다면 부모와 자녀 모두 고통 받을 수 있다. 교육비에도 시테크가 필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생활비 수준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전체 생활비에서 교육비가 최대 20%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다음으로 자녀의 나이를 고려해 목표하는 고등학교와 대학교 시점까지 준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봐야 한다. 부모의 퇴직 시기 등 라이프사이클에 맞춰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자녀를 교육비 마련에 참여시켜라. 교육비 마련을 부모만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보다 자녀를 참여시키는 것이 교육에 효과적이다. 함께 교육비 마련 계획을 짜보고 금융상품을 선택한다든가, 저축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특히 자녀의 교육비를 마련하려면 교육비 명목의 통장을 따로 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좋다. 통장을 구분하지 않고 저축통장에서 교육비를 준비하다 보면 주택마련 자금 등 목돈이 필요할 때 써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도 꼼꼼히 따져야

교육비를 위한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한다. 우선 1~3년 이내의 단기적인 교육비 마련을 위해서는 이자율은 낮지만 안전한 적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시중은행들은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만 가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을 내놓고 있다. 금리는 연 3% 수준이다.

준비기간이 3~5년가량 예상되는 교육비는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적립식펀드를 권장한다. 펀드를 선택할 땐 단기 운용수익보다 과거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용돼왔는지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어린이펀드는 자녀를 위한 영어마을 체험, 경제교육지 제공, 경제캠프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어 눈여겨볼 만하다.

자녀가 아직 어려 교육비 투자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변액보험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적금이나 펀드에 비해 중도해약이 어려운 보험을 활용하면 목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된다. 다만 변액보험은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성과에 따라 수익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구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가구 소득수준	100만 원 미만	6.1	6.3	6.8	6.8	6.8
	100 ~ 200만 원 미만	11	10.3	10.9	11	11.1
	200 ~ 300만 원 미만	18	17	17.4	16.8	16
	300 ~ 400만 원 미만	24.6	24	23.4	23	22.1
	400 ~ 500만 원 미만	31	29.8	39	28.8	28
	500 ~ 600만 원 미만	37.2	36.2	34	33.2	33
	600 ~ 700만 원 미만	42	40.4	39.4	36.2	35.9
	700만 원 이상	51.4	48.4	44	42.6	41.5

(자료 : 통계청, 단위 : 만 원)



미성년 전용 적금

기간 : 1~3년 이내 단기 교육비 마련

장점 : 안전하다.

단점 : 이자율이 낮다.



적립식 어린이 펀드

기간 : 3~5년 기간의 교육비

장점 :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다.

단점 : 펀드별 수익률 차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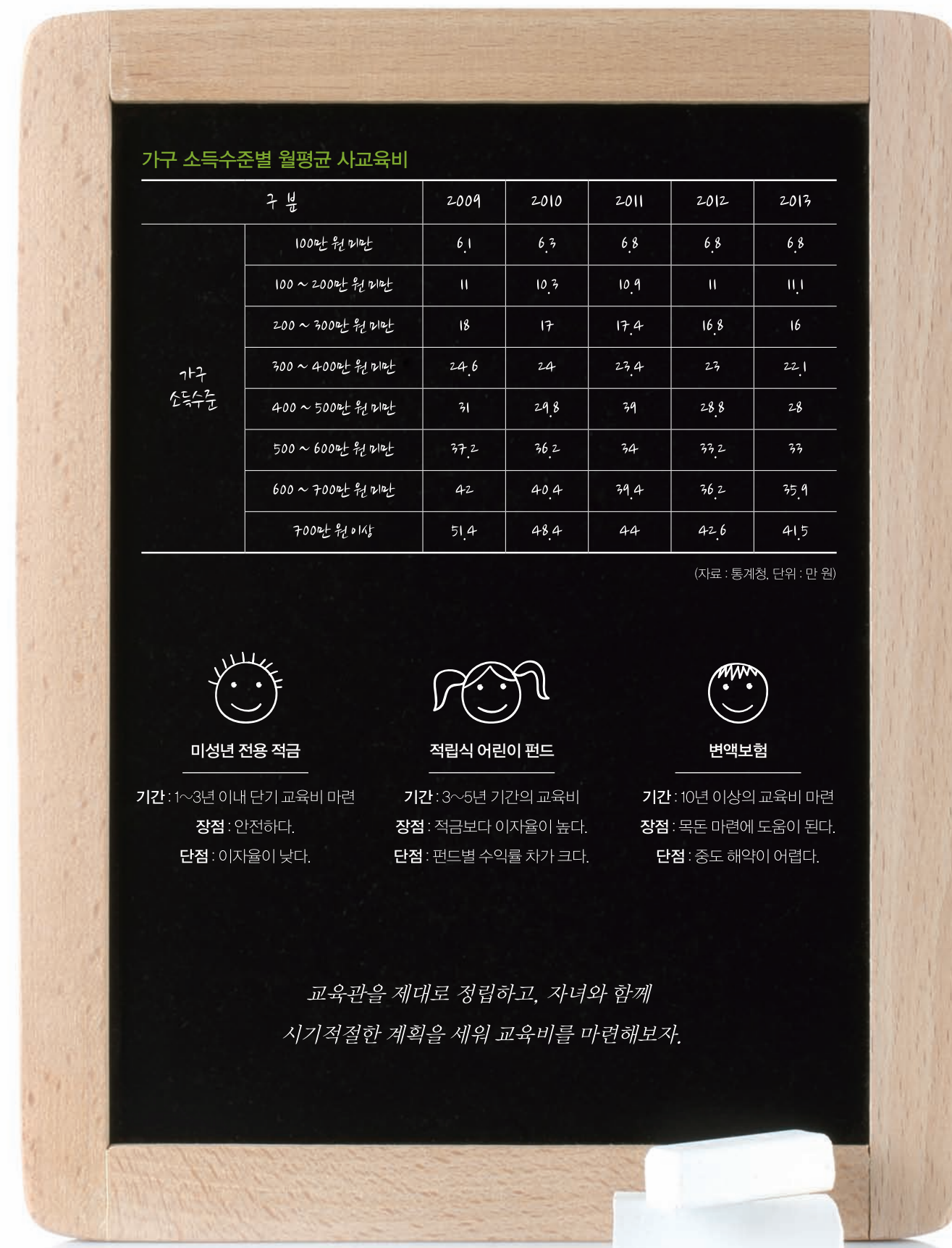
변액보험

기간 : 10년 이상의 교육비 마련

장점 : 목돈 마련에 도움이 된다.

단점 : 중도 해약이 어렵다.

교육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자녀와 함께
시기적절한 계획을 세워 교육비를 마련해보자.





오싹오싹, 간이 콩알 만해지는 순간

나는 이럴 때 가장 공포를 느낀다!

살다 보면 귀신을 보는 것보다 더 무섭고 살 떨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맛있게 먹던 샌드위치에서 벌레 반 토막을 발견했을 때, 시험 전날 “10분만” 하고 자다 깨어보니 아침일 때, 상사 욕을 한가득 적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냈는데 알고 보니 당사자가 받았을 때 등등. 으아아~ 적기만 했는데도 팔에 소름이 짝 돋는 느낌입니다. 사보담당자는 지출이 많았던 달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을 때가 가장 무서웠답니다. 하긴, 무리한 액수가 찍힌 카드 명세서는 언제나 두려운 존재네요. 게다가 부모님이 먼저 명세서를 뜯어 본다면 그 공포감은 100배 이상! 그렇다면 넥센타이어 사우들의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언제일까요?

오싹오싹, 오들오들. 나 이럴 때 간이 콩알만 해진다!? 넥센타이어 사우들이 뱀은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 <헬로우넥센>에서 공개합니다.

아근하는데 계단에서 발소리 들릴 때

거대한 벌레... 너무 크면 솔직히 남자도 두렵습니다.

신나게 3~4시간 작업하던 엑셀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꺾을 때

“오빠 나 할 말 있어”

지하주차장에서 갑자기 고양이가 툭 튀어나왔을 때

통장 잔고 확인할 때

마감시간 다 되어가는 보고서를 열심히 마무리 짓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멈출 때

출장 갔는데 자료 안 챙겨간 걸 인지했을 때

회식 갔다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문 앞에서 팔짱끼고 기다리는 아내



번지점프가 너무 무섭습니다.

새벽에 초인종 소리가 들려 나갔는데 아무도 없을 때

아이가 없어졌을 때

아침부터 대리점에서 주문 잘못 넣었다고 전화 올 때

여자친구가 휴대전화 패턴 풀고 있을 때

졸음운전. 정말 미친듯이 눈꺼풀이 내려오는데 문득 몇 초간 잤다는 걸 깨달을 때

FBI WARNING이란 글자가 뜨는 순간 들어오신 어머니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아내 표정이 안 좋을 때

쉬는 날 회사에서 전화 올 때

공포영화 볼 때.....

지금은 덜하지만 재입대 꿈을 꾸었을 때 무서웠습니다.



양산공장 추천 맛집 이열치열 vs 이한치열

제품디자인팀 김태년 대리

달콤쌉쌀 끝 맛에 넘치는 새우살까지
복성반점 짬뽕

동운반점, 충남분식과 함께 부산지역 3대 짬뽕 중 하나로 꼽힌다. 주문을 하면 일단 엄청난 양에 놀라고 또 가득 들어찬 새우에 놀란다. 새우 뿐 아니라 쫄깃한 조개관자에 윤기 나는 한치까지 양파, 버섯과 함께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일반 짬뽕이 얼큰하고 매운맛을 강조하는 반면 이곳의 짬뽕은 맵지 않으면서 양파 특유의 달콤한 끝 맛이 있다. 가격 또한 양에 비해 무척 저렴한 6천 원.

INFORMATION
메뉴 짬뽕 6천 원, 삼선짜장 7천 원
위치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중앙로 289
문의 051-291-7834 영업시간 11:00 ~ 20:30



以熱治熱



수출입관리팀 박현석 과장

훈제오리와 단호박의 절묘한 하모니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 단호박훈제오리

그대 발길 머무는 곳에의 대표 메뉴는 단호박으로 찌낸 훈제오리와 영양밥이다. 훈제오리는 오리 특유의 기름기가 단호박과 어우러져 느끼함이 전혀 없다. 훈제구이만의 구운 냄새와 단호박 향의 하모니도 은은하게 코를 자극한다. 오리고기가 식상할 땐 호박 속에 들어찬 영양밥을 오물조물 씹어보자. 훈제오리의 경우 시간이 걸리기에 예약이 필수다. 이 식당의 또 다른 매력은 주변 경관과 매장 곳곳에 들어찬 주인장의 울림 있는 글귀다. '왠지 낯설지 않은 그대는 황금빛 미소 아름 머금고 오늘 오셨습니다'라는 따스한 말이 입구부터 손님을 반긴다.

INFORMATION
메뉴 단호박훈제오리, 단호박영양밥 모두 4만 8천 원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로 34
문의 055-375-8100 영업시간 12:00 ~ 22:00



무더운 여름을 나기 위해 좋은 음식은 어떤 것일까. 뜨거운 음식을 먹고 땀을 짹 빼는 게 좋다는 의견과 역시 더위를 잊으려면 가슴 깊숙한 곳까지 시원한 걸 먹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사우들이 추천하는 부산·양산 지역의 뜨겁고 시원한 맛집을 정리했다.

RE개발1팀 변길재 사우/출고관리파트 손준영 사우
쫄깃한 낙지의 매콤한 공격
착한낙지 낙지볶음덮밥

부드럽고 탱글탱글한 낙지가 빨갛게 매운 고추장 양념과 완벽하게 어우러졌다. 냄새도 첫 맛도 많이 강하진 않지만 꿀꺽 삼키자마자 은근히 열기가 올라온다. 정갈한 순두부와 샐러드, 콩나물 무침과 오이냉국으로 구성된 심심한 밑반찬은 낙지볶음이 주는 화통한 맛을 적당히 잡아준다. 반찬은 물론 하얀 쌀밥까지 계속해서 셀프로 가져다 먹을 수 있다. 매장 곳곳에 보이는 유쾌발랄한 문구에서 주인장의 센스를 느낄 수 있다. 3일 이내 방문하지 않으면 손발이 오그라든다.

INFORMATION
메뉴 낙지볶음덮밥 9천 원, 낙지해물파전 1만 2천 원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동중5길 23
문의 055-363-5456 영업시간 11:00 ~ 22:00



以熱治熱

인사지원팀 정재현 대리
부들부들 살코기 일품인 여름 보양식
배종관 동래삼계탕 삼계탕

동래구청 뒤편에 위치한 배종관 동래삼계탕은 30년 넘게 동래를 지킨 터줏대감 맛집이다. 식사 메뉴라고는 궁중약계탕과 동래삼계탕, 덜렁두 가지이지만 그만큼 삼계탕에 대한 주인의 자부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곳의 삼계탕은 일단 국물이 진하고 걸쭉하다. 거기에 부드럽고 고소한 닭고기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또 고명으로 올라가는 파가 삼계탕 특유의 느끼함을 잡는다. 반찬 또한 일품이다. 빨갛게 익은 김치와 깍두기도 매콤하니 맛있고, 따라 나오는 닭똥집 역시 별미다.

INFORMATION
메뉴 동래삼계탕 1만 3천 원, 궁중약계탕 1만 5천 원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동래로116번길 39
문의 051-555-2464 영업시간 11:30 ~ 21:30



경영관리팀 장우영 대리

겉쫀한 콩국에 생면이 풍당
하가원 콩국수

더울 때 찾는 별미 중의 별미 콩국수. 콩국과 면 모두 맛있어야 일품 콩국수라 할 수 있는데 하가원의 것은 둘 다 제대로 갖추고 있다. 마치 스프처럼 유난히 겉쫀하고 고소하기까지 한 콩국에는 강원도 인제에서 자란 국산 콩이 쓰였다. 면 또한 씹는 맛이 좋은 생면을 사용한다. 하가원의 돌판비빔밥과 수제비도 인기 메뉴다. 특히 수제비는 5천 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에 감자와 새우로 꽉꽉 채워져 한 냄비 가득 나온다.

INFORMATION
메뉴 콩국수 7천 원, 수제비 5천 원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로91번길 28
문의 051-702-5511 **영업시간** 10:00 ~ 23:00

以寒治熱



경영관리팀 우상준 대리

공공공 얼음 위 올라간 쫄깃쫄깃
인절미
설빙 센텀점 빙수

무더위를 날리는데 빙수만큼 좋은 간식도 없다. 딸기빙수, 커피빙수 등 다양한데 이곳의 강추 메뉴는 인절미를 이용한 인절미설빙과 인절미 토스트. 인절미설빙은 고소하고 쫄깃쫄깃한 떡에 콩고물이 수북이 뿌려져있다. 콩고물을 조금 덜어낸 후 연유를 담백 올려 손가락으로 살살 떼가며 먹는 게 포인트. 인절미토스트에는 아이스크림이 올라가 있어 시원함이 배가 된다. 새로 나온 메뉴인 망고유자설빙과 망고치즈설빙도 인기 물이 중이라고.

INFORMATION
메뉴 인절미설빙 6천 원, 망고유자설빙 9천 원
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센텀스퀘어 3층
문의 051-731-0075 **영업시간** 10:30 ~ 22:30

생선2팀 장정식 팀장/자금팀 이상영 과장
쫄깃한 가자미 살이 얼음을 만났다
해초 물회

사시사철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여름철에 더 끌리는 게 바로 물회. 쫄깃쫄깃 한치 물회와 오돌오돌 씹히는 맛이 일품인 물가자미 물회가 베스트 메뉴. 물회를 주문하면 기본 밑반찬은 물론 푸짐한 찜과 매운탕이 나온다. 면 사리를 풍당 담고 후루룩 들이키는 것도 물회를 먹는 재미다. 자타 공인 양산의 물회 맛집으로 하루 2천 그릇 이상의 매출을 올릴 때도 있다고, 요즘 같은 더운 여름엔 예약이 필수. 넓은 주차장도 있어 차를 끌고 가도 문제 없다.

INFORMATION
메뉴 물가자미물회, 회덮밥 모두 1만 3천 원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삼성7길 21-16
문의 055-381-8233 **영업시간** 10:00 ~ 22:00



무더위에 잃어버린
입맛 돋우는
별미가 따로 있으랴.
이열치열, 이한치한 음식으로
쫄통더위를
한 방에 날려보자.



설비보전1파트 이희석 과장

야구장 가기 전 한 그릇 똑딱
주문진막국수 막국수

사직야구장 건너편에 위치한 막국수 맛집. 소뽕을 2시간 넘게 고아 만든 육수 국물에 쫄깃한 면발을 넣고, 거기에 김과 깨, 오이와 무가 들어가 심심하고 맑은 맛이 난다. 비빔막국수도 맛있는데 빨간 양념이 묘하게 맵고 은근히 입맛을 잡아당긴다. 겨자의 양에 따라 맛이 달라지니 입맛에 맞게 조절하면 된다. 한창 더울 때 가면 번호표를 받아야 할 정도로 사람이 많으니 이 점 명심.📍

INFORMATION
메뉴 국수 6천 원, 비빔막국수 6천500원
위치 부산광역시 동래구 사직로58번길 8
문의 051-501-7856 **영업시간** 10:30 ~ 22:00

以寒治熱

양산 법기수원지

80년 공공 감춰진 비밀의 숲

무더위를 떨치기에 가장 좋은 곳은 바다지만 우거진 숲 속에서 바깥
날씨를 잊고 '힐링'을 하는 것도 훌륭한 피서법. 넥센타이어 양산 본사
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신비로운 숲이 80년 동
안의 이야기를 품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반인 출입 금지됐던 비밀의 장소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자리한 법기수원지는 말 그대로
'비밀의 장소'라 할 수 있다. 1932년 완공된 이후 80여 년
간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됐던 이 수원지는 2011년 7월에
야 일반인에 모습을 드러냈다. 간혹 대통령이나 국민이
방문했을 뿐 외부인의 발길이 일절 제한돼 수원지 680만
제곱미터에 있는 히말라시다와 반송, 편백나무, 추자나
무 등은 원시의 자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아담과
이브만 없을 뿐 에덴동산이라 불러도 될 정도다.
법기수원지의 정문을 들어서면 누구나 '아!'하는 감탄사
를 뱉게 된다. 바로 중앙 길 좌우에 솟아 있는 59그루의
히말라시다 때문. 히말라야 산맥이 고향인 이 나무는
30m 높이의 매끈한 자태를 뽐내며 수원지를 찾은 손님
에게 인사를 한다.

히말라시다 주위에는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피

톤치트'가 많이 나오는 편백나무가 총총히 들어서 있고
130여 그루의 벚나무와 은행나무, 감나무가 수림지를 가
득 채우고 있다. 입구 오른 편에 있는 '벼락 맞은 나무'도
볼거리다.
히말라시다 길을 거슬러 오르면 하얀색 목조 건물이 보
인다. 수원지가 만들어진 일제시대에만 해도 관사로 쓰
이던 곳인데, 개방 후에는 화장실로 이용되고 있다. 화장
실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 댐 위로 오르는 123개의
하얀 하늘계단이 보인다.

Info 법기수원지

문의 전화 055-383-5379 운영 시간 8:00 ~ 18:00

입장료 없음

정상에서 느끼는 경외감과 해방감



수원지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댐 정상에서 볼 수 있다. 울창한 나무숲을 보며 느낀 경외감이 눈앞을 가득 메운 푸른 물을 보고 해방감으로 바뀐다. 또 뚝방길에는 130년 간 이곳을 지킨 붉은 빛깔 반송 6그루가 멋진 자태를 뽐내며 줄지어 있다. 수원지에는 하루 8,400m³의 물이 공급되는데, 이 맑고 깨끗한 물은 입구 주위 청룡동과 남산동, 두구동 일원 7,000여 세대의 밥상에 공급된다. 조금만 주의 깊게 보면 물속을 누비는 많은 고기떼를 찾을 수 있다.

사실 이 깨끗한 숲은 단순히 바라보기엔 너무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파란색 취수탑을 지나 나무 계단을 내려오면 입구가 봉쇄된 일명 '무덤실'이 보이는데, 그 위로 '원정운군생(源淨潤群生, 깨끗한 물은 많은 생명체를

윤택하게 한다)'이라는 석각이 있다. 일제강점기 시절 두 번이나 총독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가 새긴 문구다. 수원지의 반송들은 댐이 만들어질 당시 이미 수령이 50년이 나 됐는데, 한 그루당 20명이 넘는 장정들이 매달렸다는 것만 들어도 제작 당시 얼마나 많은 인력이 착취됐을지 짐작할 수 있다.

독립운동가 강우규 열사는 1919년 9월 당시 65살의 나이에 조선 총독으로 부임하던 사이토가 탄 막차에 폭탄을 투척했다. 순사와 일본 기자 등 많은 사상자를 냈지만 총독은 죽지 않았고, 보름 만에 붙잡힌 강 열사는 '단두대 위에도 봄바람은 있는데 봄은 있어도 나라가 없으니 어찌 감상이 없으리오'라는 말을 남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속세에선 못 느끼는 자연 그대로의 시간

빠른 걸음으로 10분, 천천히 걸어도 30분이면 한 바퀴 돌 수 있지만 범기수원지는 같은 시간, 같은 순간, 바깥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한다. 저 높은 나무는 언제부터 이곳을 내려 보고 있었는지, 또 저 많은 물은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흘러가는지, 녹색 이파리를 뚫고 쏟아지는 햇살은 눈부시기 그지없고 벤치에 앉아 담소를 나누는 연인, 가족들의 모습에선 속세의 근심 걱정을 모두 내려놓은 자연인의 면모를 볼 수 있다.

오랜 기간 출입이 통제된 곳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된 지금도 방문객에선 많은 주의사항을 주문한다. 일단 배낭 등의 큰 가방은 가져갈 수 없다. 자동차는 물론 자전거도 들어올 수 없고 애완견도 출입금지다. 나뭇잎이나 씨앗을 채취해서도 안 된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배려가 있음에 수원지가 자연 본연의 모습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또 그런 배려는 다시 우리들에게 맑은 물과 공기로 돌아온다. 신록이 가장 울창한 여름, 80년 비밀의 숲의 맑은 기운을 느끼러 오는 주말 범기수원지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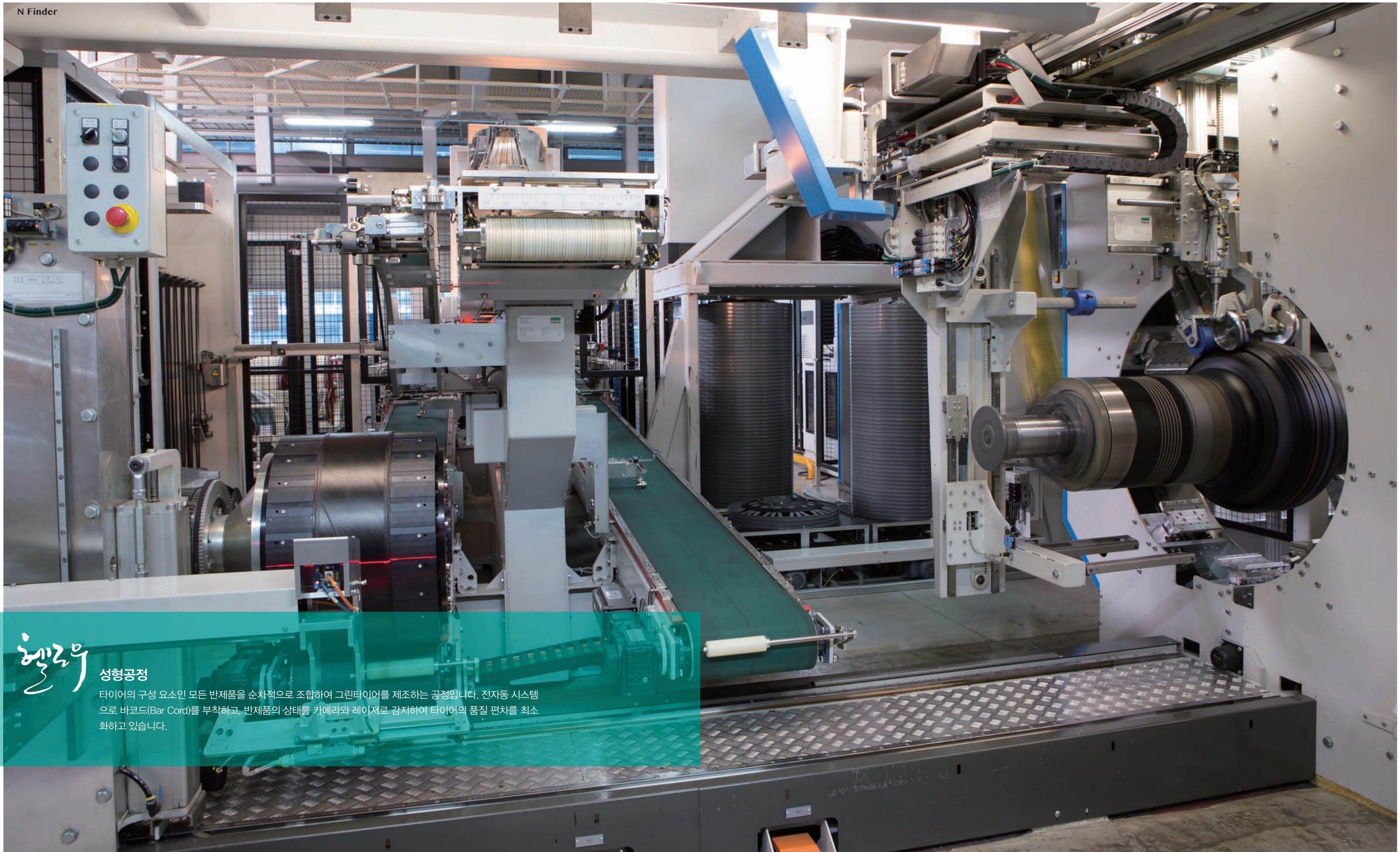
범기수원지는 같은 시간, 같은 순간,
바깥 세상에선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한다.





성형공정

타이어의 구성 요소인 모든 반제품을 순차적으로 조합하여 그린타이어를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전자동 시스템으로 바코드(Bar Cord)를 부착하고, 반제품의 상태를 카메라와 레이저로 감지하여 타이어의 품질 편차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유럽팀 단체 프로야구 관람

기억하라 그 이름, 넥센히어로즈!



평소 단합력 좋기로 유명한 서울사무소 유럽팀이 목동 야구장에 모였다. 2014 프로야구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넥센히어로즈를 응원하기로 한 것. 에너지 넘치는 유럽팀의 뜨거운 응원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유럽팀, 목동 야구장에 뒀다!

쨍한 해가 내리쬐던 목동 야구장. 저 멀리서 서울사무소 유럽팀 사우들이 두 손 번쩍 들고 웃으며 달려온다.

어? 그런데 낮익은 얼굴이 보인다. 지난 호 멘토&멘티 코너를 통해 부천에서 나들이 시간을 보낸 강영한, 박성민 사우다. 둘이서만 즐거운 추억을 만든 게 아쉬워 이번엔 팀원 모두가 함께하고자 팀스토리의 문을 두

드렸다는 그들. 작년 가을 이후 오랜만의 단체 야구 관람이라며 먹을거리는 물론 회사에서 지원받은 유니폼과 모자, 응원막대까지 준비한 치밀함이 '역시 넥센타이어 최고의 팀워크를 자랑하는 유럽팀'임을 입증하는 듯했다.

경기 시작 전, 넥센히어로즈 구단의 배려로 선수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할 기회가 생겼다.

한현희 선수에게
싸인받고 있어요!



어떤 선수를 만나게 될까 설레는 마음으로 중앙 출입구에 다가서자 곧 박병호 선수와 한현희 선수가 나와 밝은 미소로 사우들을 맞았다. 한국 프로야구 최고의 홈런타자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 박병호 선수와 프로 입단 2년 만에 홀드왕 기록을 세운 한현희 선수를 보자마자 사우들의 입에서 “와~” 탄성이 터져 나온다. 평소 동경하던 선수를 실제로 만나니 신기함 반, 신남 반인 모양이다. 촬영을 위해 따로 미소를 주문하지 않아도 이미 사우들의 입꼬리가 귀 끝까지 걸려있다. 선수들에게 패기 넘치게 파이팅을 외치던 사우들. 이들의 열정이 선수들의 마음에 오롯이 담겨 좋은 경기를 펼칠 길 바라는 마음이라.

“저희 팀이 매년 개최되는 서울사무소 풋살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을 거머쥐었거든요, 저희 우승 파워를 받아서 오늘 넥센히어로즈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넥센타이어의 중심에서 유럽을 외치다

유럽팀은 해외영업부서에서 유럽지역 영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지점, 파리지점, 영국지점, 스톡홀름지점 등 현지 지·법인을 전담하여 그에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을 처리한다. 특히 각 분야의 선두 브랜드들이 첨단 제품을 내놓는 유럽지역에서 시장과 제품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인증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해 현지 및 본사의 연구소나 품질 담당 부서와도 긴밀하게 협력하며 제품 개선 및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시차 때문에 현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때도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유럽팀은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유럽지역에 제4공장 설립이 예정되어 앞으로의 물량 증대에 대비해 영업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워낙 선진시장이다 보니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도 더 노력하게 되네요.”

3회 말, 서건창 선수의 2루타에 허도환 선수가 3루까지 진루하자 환호성이 터졌다. 손바닥을 마주치며 다시 한번 파이팅을 외치는 그들. 정해진 포지션에서 개성 있는 플레이로 경기를 끌어가는 넥센히어로즈 선수들처럼 유럽팀원들도 각자의 스타일로 맡은 포지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며 함우성 과장이 팀원들을 둘러본다.

“감독인 저희 팀장님의 지휘 아래 오영택 과장님이 힘껏 공을 던져 팀의 단결을 주도하는 투수 역할을, 문영



정해진 포지션에서 개성 있는 플레이로 경기를 끌어가는 넥센히어로즈 선수들처럼 유럽팀원들도 각자의 스타일로 맡은 포지션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에 사원이 전체 경기의 흐름을 관찰하고 때때로 흔들리는 선수들을 잡아주는 포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른 팀원들도 각 루를 지키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고요, 그러니 단결력도, 업무 성과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겠죠?”

옆에서 듣고 있던 노재훈 팀장이 웃으며 말을 이었다.

“좀 더 경험 있는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고 후배들은 그에 노력을 얹어 업무를 수행합니다. 책임감 있는 팀원들의 모습에 항상 뿌듯함을 느끼지요.”

선수들의 희비에 함께 웃기도, 아까워하기도 하며 맛있는 치킨과 맥주를 곁들인 경기를 즐기던 그들. 비록 9:7로 아쉬운 패배를 맞았지만, 모두가 함께한 덕분에 그간의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었다고 말하는 팀원들의 표정에 시원함과 만족스러움이 한가득이다. ‘넥센’이란 이름 아래 좋아하는 사람들과 가슴 속 열정을 마구 발산한 넥센타이어 유럽팀. 그동안 끈끈히 이어왔던 단합력으로 앞으로도 유럽과 넥센타이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임을, 넥센타이어 해외 진출의 중심에는 언제나 유럽팀이 있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파이팅, 넥센! 파이팅, 유럽팀!👊





업무상 조율이 필요한
두 팀에게 있어서
원활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실 저희 친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이른 오후, 약속 장소에 들어서는 사우들의 표정이 한껏 상기되어 있었다. 알고 보니 처음으로 평일 런치 메뉴 할인을 받아 점심을 먹고 오는 길이란다. 회사 근처에서 급하게 끼니를 때워야 하는 바쁜 직장인들의 비애를 잘 알기에 그 기쁨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첫 크로스 회식을 하는 이들이라기에는 사이가 무척 좋아 보인다. 어색한 분위기를 예상했던 터라 의아한 생각이 들 때쯤 미주팀의 조대흠 사우가 이유를 설명해준다.

“사실 업무상 통화를 자주 해요. 같은 서울 사무소에 있다 보니 자리도 가깝고요, 이번에 사무실 구조가 바뀌면서 더욱더 가까워졌죠.”

해외 영업을 담당하는 미주팀이 거래소에서 주문을 받아오면 글로벌지원팀에서 공장의 생산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는 작업을 한다. 때문에 업무상 조율이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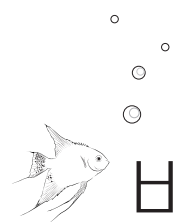
요한 두 팀에게 있어서 원활한 소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거래소의 요청을 받는 미주팀에서는 글로벌지원팀에 업무상 조율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거래소에서 갑자기 요청한 내용물을 바꿔 달라거나 기한일을 바꾸면 시스템적으로 수정을 해야 돼요. 아무래도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그럴 땐 전화보다 직접 찾아가서 부탁하기도 하죠.”

“부탁하러 올 때는 음료수 같은 거라도 사와야 하는데 잘 안 사오더라고요~!”

“하하하 대리님, 알겠습니다!”

서동욱 대리의 장난 섞인 이야기에 사우들이 한바탕 웃는다. 서로 다른 팀에 속해 있는 그들이 거리낌 없이 농담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협업으로 묶인 사이인 만큼 가끔 예민한 상황도 발생하지만 그만큼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을 테다.



미주 · 글로벌지원팀 사우들의 크로스 회식

바닷속 세상으로 빠져들다

부서 간의 교류를 통해 원활한 소통과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크로스 클래스. 그 두 번째 이야기에 미주팀의 정우석, 조대흠, 민다는 사우와 글로벌지원팀의 서동욱 대리, 이지혜 사우가 아쿠아리움을 찾았다. 무더운 여름, 보는 것만으로도 시원해지는 그들의 회식 현장으로 따라가 보자.





따로 또 같이, 교집합과도 같은 우리

교류가 활발한 그들인 만큼 함께 모일 기회가 있었을 법도 한데, 두 팀이 뭉치는 것은 오늘이 처음이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동안 밥 한번 함께 먹은 적이 없어요. 자리를 만들려면 만들 수 있었겠지만 사원들이 만드는 자리는 분명 한계가 있죠, 그런 의미로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자주자주 만들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입니다.”

설레어 잠도 설쳤다는 정우석 사우는 업무상 의견 충돌이 종종 일어날 수밖에 없는 두 팀의 단합이 누구보다 반갑다.

“거래스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 팀은 들어주지 않을 수 없고, 글로벌지원팀은 생산 공장의 상황을 잘 알기에 가끔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땐

어느 정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해결하기도 하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니까요.”

분위기가 조금 진지해지자 이지혜 사위가 서동욱 대리의 귀여운 곰돌이 티셔츠를 가리키며 한마디 한다.

“대리님 오늘 첫 회식이라고 너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오신 거 아니에요?”

듣고 있던 조대흠 사우드 혹시 따님 옷을 입고 오신 것 아니냐며 웃음을 보낸다.

“최대한 젊어 보이는 걸로 입고 온 거야!”

“하하하하~”

그러고 보니 서동욱 대리뿐만 아니라 참석한 사우 모두 오랜만의 바깥나들이에 한껏 신경을 쓴 모양이다.

답답한 사무실에서 벗어나 잠시 일탈을 한다는 것은 그게 누구든 분명 즐거운 일임이 틀림없다.



물고기 친구들과 하하호호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아쿠아리움에 입장할 시간이다. 사우들이 관람하는 한화 아쿠아플라넷은 화려한 해양생물뿐만 아니라 재규어, 카피바라, 원숭이 등 육상동물까지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참석한 사우 중 가장 나이가 어리다는 민다는 사우는 신나는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우들을 부른다.

“여기 좀 보세요! 우와! 이것 좀 봐요! 진짜 예쁘죠?”

그러자 이지혜 사위가 달려간다.

“예쁘대! 그런데 이 문어 맛있게 생겼다. 그치~”

“와하하하 그러네요!”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터널수조가 나오자 온 사우들이 입을 다물지 못한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물고기 떼에 넋을 놓고 있는데 때마침 범무늬소녀가오리가 웃는 모습으로 사우들에게 다가왔다.

“애가 뭘 좀 아네. 그래 찍어줄게!”

“나랑 같이 찍어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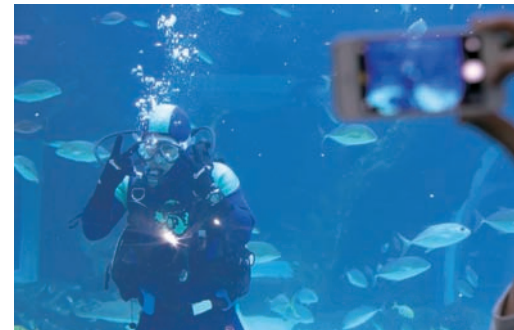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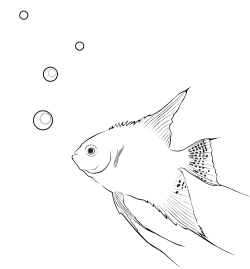
아쿠아리움 존을 지나 동물원으로 자리를 옮긴 사우들, 자신을 길들이려는 사육사에게 토라진 바다코끼리를 보며 웃고, 직접 새와 수달 등에게 먹이 주기 체험을 즐기다 보니 벌써 모든 관람이 끝났다.

“다음번에는 딸을 데리고 꼭 다시 와야겠어요.”

“좋을 것 같아요, 대리님! 대신 마지막에 기프트샵은 조심하셔야 되겠던데요?”

“하하하~ 명심할게!”

많은 사우가 그렇겠지만 미주팀과 글로벌지원팀 또



한 최근 바쁜 업무로 인해 퇴근 시간을 지키기가 힘들다. 하지만 고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원동력은 노고를 알아주는 회사와 동료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날 체험을 마친 뒤 크로스 클래스에 참석한 사우 외에 모든 미주팀과 글로벌지원팀 사우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식을 했다. 무엇이든지 처음이 어려운 법. 이날을 계기로 두 팀이 종종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라본다.⑩



에필로그

- 서동욱 대리** 일상에서 벗어나 사랑스러운 후배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이지혜 사원** 좋은 날 좋은 곳에서 미주팀과 친해질 수 있어 좋았어요, 또 소풍 가요!
- 정우석 사원** 평소 하지 않던 대화를 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조대흠 사원** 평일 런치 메뉴를 먹고 바람도 쐬고, 정말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 민다는 사원** 사무실에만 콧 박혀있다가 동물 친구들을 보니 마음이 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 크로스 클래스의 취지에 맞게 이번 <헬로우넥센>에서는 미주팀과 글로벌지원팀의 회식을 지원했습니다. 평소 서운한 점이 있거나 친해지고 싶은 팀이 있었다면 지금 바로 사보 담당자에게 연락주세요!

신입사우들의 집수리 봉사

여름·겨울나기 대공사, 뜯고 붙이고 깔고 닦고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5월 10일, 넥센의 새내기들이 집수리 봉사에 나섰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4인방은 안현우(경영관리팀), 이성준(수출입관리팀), 손주영(회계팀), 유시은(자금팀) 사우였다.



할머니댁 새 단장 저희에게 맡기세요

네 명의 신입사원들이 할 봉사는 장판과 도배를 새로 하는 일이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15평가량의 작업 장소에는 할머니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보조 기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다. 오전 9시 10분경 안현우 사우가 도착하며 모든 인원이 모이자 현장 지휘자인 '희망의 러브하우스' 하영춘 본부장이 오늘 해야 될 일을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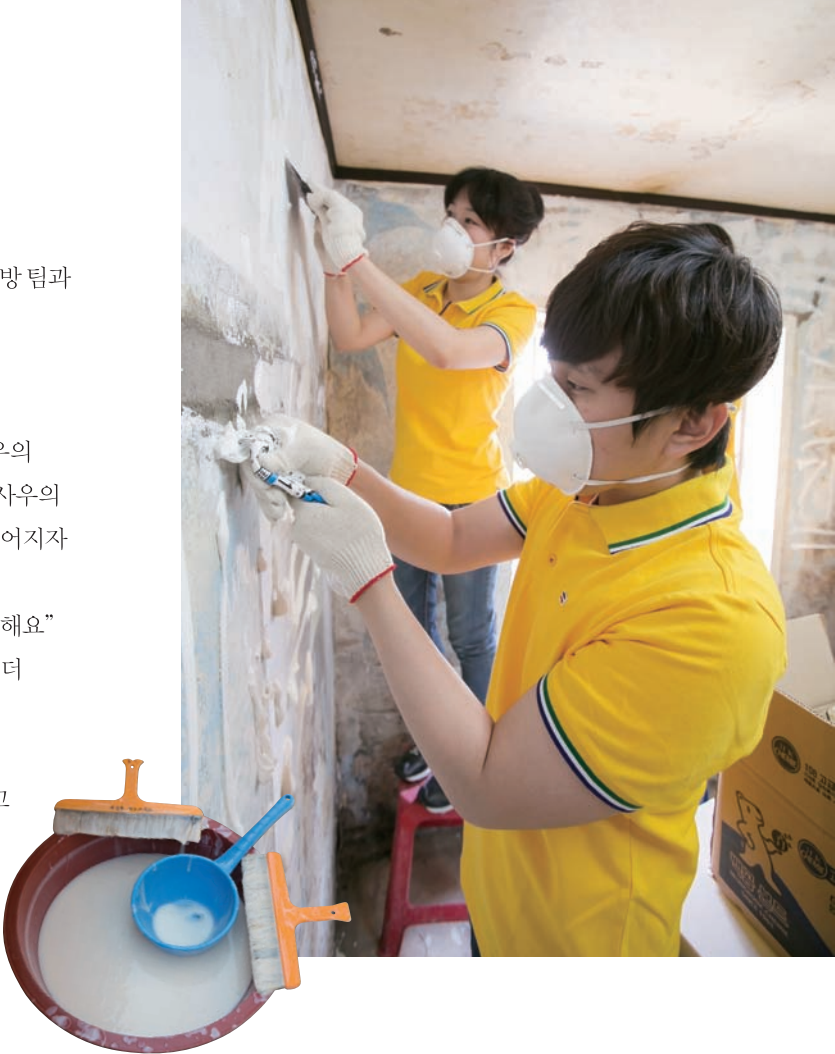
“오늘 여러분이 할 일은 도배를 하고 장판을 새로 까는 겁니다. 일단 작은 방의 벽지를 뜯는 일부터 시작하세요. 뜯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떼 주세요.”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일단 방에 들어섰지만 무엇부터 할 지 막막하기만 한 사우들. 하지만 주위 봉사자들이 하는 걸 유심히 보더니 이내 한 쪽 벽부터 북북 뜯기 시작했다. 작업에 가장 먼저 익숙해진 유시는 사우는 해매고 있는 안현우 사우에게 “두 겹이니까 조심하 떼야 해요”라며 주의를 줬다. 오전 시간에 투입된 인원은 넥센 인력을 포함 총

8명. 처음엔 모두가 작은 방에서 작업하다 잠시 후 큰 방 팀과 작은 방 팀으로 나뉘었다.

갑자기 등장한 불청객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싶었지만 갑자기 손주영 사우의 비명이 들렸다. “바... 바퀴벌레!!” 곁에 있던 유시은 사우의 표정도 굳어졌다. 바퀴를 잡느라 작은 방에 소란이 벌어지자 하영준 본부장은 답답한 듯 작게 한숨을 쉬었다. “여러분, 이 집은 양호한 편입니다. 다른 곳은 훨씬 심해요” 곁에서 지켜보던 이성준 사우도 “바퀴가 아마 우리를 더 무서워 할 거야”라며 여자 사우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쓰레기 정리 및 단열 작업이 계속됐다. 일부는 베테랑들의 지시에 따라 벽에 접착제를 바르고 나머지는 버리는 벽지를 테이프로 툼툼 말아 바깥에 내놓았다. 쉬는 시간에 자기소개를 한 후 풀 바르기 작업을 시작했다. 벙센 사우들이 벽지에 풀을 바르면 선배 봉사자들이 벽에 그걸 갖다 붙이는



방식이었다. 사우들의 풀질이 서툴자 “풀질에서 중요한 건 특히 모퉁이 부분에 풀을 충분히 바르는 것입니다”라며 하영준 본부장이 나서 전문가의 솜씨를 보였다.

금강산도 식후경, 간식에 점심까지

한 시간가량 작업을 계속한 후 간식 시간을 가졌다. 떡볶이와 순대, 막걸리와 부침개 등이 한 상 푸짐하게 차려졌다. 간식을 먹으며 벙센 사우들과 러브하우스 사람들이 도란도란 담소를 나눴다. 몇 년 째 집수리에 나서고 있다는 한 봉사자는 즐거워하는 사우들을 보며 “여러분을 보니 처음 제가 봉사했을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맨 처음 집수리를 마치고 나니 기분이 정말 좋았거든요”라며 웃었다. 이어 풀칠과 도배 작업이 계속됐다. 모두 모여 풀을 바르다 유시은, 이성준 사우는 도배 작업에 투입됐다. 점심시간은 12시. 작업과 수다가 쉬지 않고 이어지자 점심까지 남은 한 시간도



빠르게 흘렀다. 간식을 먹은 지 얼마 되지 않았어도 식사는 빼놓을 수 없는 일. 인근 중국집을 찾은 사우들은 볶음밥과 삼선짬뽕, 탕수육과 군만두 등을 시켜놓고 주린 배를 채웠다. 마지막 남은 밥풀 하나까지 싹싹 긁어먹은 사우들은 “역시 땀 흘린 뒤 먹는 밥이 꿀맛”이라며 두둑해진 배를 두드렸다.

소중한 구슬땀으로 말끔한 새 집을

집수리 작업은 저녁까지 계속됐다. 당초 거실까지 손보려 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 작은 방과 안 방 두 군데만 정리했다. 오후에도 도배 마무리에서 장판 작업까지 힘든 일이 계속됐지만 사우들은 찌푸림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했다. “이런 걸 해볼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참여할 수 있어 기뻐요. 하기 전에는 힘들 것 같아 걱정했었는데 생각만큼 어렵지도 않네요. 저는 물론이고 모두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참여하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소중한 구슬땀이 모여 일궈낸 집수리. 힘든 내색 없이 다음을 기약하는 새내기들의 모습에 훈훈함이 넘쳐난다. ㉞

오후에도
힘든 일이 계속됐지만
사우들은 찌푸림 한 번 없이
묵묵히 일했다.



오랜만에 만난 가재 친구 새 친구

이 글은 양산공장 재료파트
백민수 직장이 등산을 다니며
사귄 동물 친구들을
소개하고자 쓴 글입니다.
언제나 즐거움을 주는
딱따구리, 가재 친구에게
감수성 듬뿍 넣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네요. 백민수
직장의 산 친구들 이야기,
함께 감상해볼까요?

오늘은 저의 산 친구들을 소개할까 합니다.
다름 아닌 딱따구리와 가재죠.
이 친구들은 저에게 항상 기쁨과 즐거움을 준답니다.
금정산능선에 있는 의상봉 밑에 ‘이끼바위’라는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끼바위는 바위 밑 틈 주변에
이끼가 많이 있고 그 사이로 물줄기가 일 년 내내 마르지 않고
흘러내려 동네에선 꽤나 유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바위를 거북바위님이라고 부릅니다.
거북이처럼 생겼기 때문이지요.
주중에 3~4일은 이 거북바위님에게 찾아가곤 한답니다.
어제는 제법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등산하기에 더 없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등산로의 흙은 촉촉이 젖어 발을 딛을 때면 폭신함이 느껴지는데
바로 앞 죽은 소나무에 붙어있는 딱따구리 한 마리가 저를 보고
반가운지 “따닥 따닥따닥”하며 노랫가락 음에 맞추어 쪼아대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지...
작년에 딱따구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죠. 따닥이라고.
저기에 있는 저 딱따구리가 혹시나 따닥이는 아닌지 눈 여겨 보았습니다.
그때보다는 몸집이 작은 것으로 보아 따닥이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따닥이 새끼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따닥이 새끼를 위해 반따닥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왜냐고요? 만나서 반갑다는 반자와 어미 이름을 붙여서 반따닥이...
“반따닥아~~~”라고 큰 소리로 부르니 반따닥이는 이름이 마음에 드는지
소나무를 세게 쪼아댁니다. 저러다 주둥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앞섭니다.

“반따닥아~ 너무 쪼아대지 말고 내일 또 만나자”라 얘기 하고는
발길을 돌립니다.
등산로 계곡엔 어제 내린 비로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물이 고인 것을 보고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저만 알고 있는 바위 밑 웅덩이에 또 다른 친구가 있거든요.
이 녀석은 만나기가 참 어렵죠. 바로 가재랍니다.
물웅덩이에는 여러 나뭇잎과
작은 나뭇가지들이 꽤 많이 떠있습니다.
유난히도 많은 것을 보아 ‘간밤에 비가 정말 많이 내렸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뭇잎이 움직이기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가재 녀석이 있습니다.
가재 녀석은 집게를 움직이면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나 봅니다.
저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야! 친구야 반갑다”하며 큰 소리로 말을 합니다.
가재 녀석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조용히 집게만 움직입니다.
“녀석, 작년이나 올해나 여전하네”라고 중얼거립니다.
가재에게도 집게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었죠.
집게 녀석도 작년 보다는 몸집이 작아 보입니다.
작년 겨울 물 한 방울 없이 바위틈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해 자라지 못했나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물도 고여 있고 나뭇잎들과 나뭇가지들, 여러 먹을 것이 많아
아침부터 만찬을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얼마나 기쁘지 모릅니다.
“집게야, 많이 먹고 오랫동안 살아다오”라고 인사를 건네고 다시 발길을 돌리며
간절히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거북바위님, 나의 산 친구들 반따닥이와 집게를 잘 보살펴 주시고
넥센타이어 사우들에게도 늘 기쁨과 즐거움의 선물을 주세요”라고,¹⁾





제품디자인팀

세계에서 인정받은 넥센타이어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 석권

넥센타이어가 마침내 최고 권위의 '세계 4대 디자인 어워드'를 석권하며 그랜드슬램(Grand slam)을 달성했다. 디자인 부문 그랜드슬램은 세계 타이어 업계에서도 유일무이한 기록이다. 다른 산업을 통틀어도 BMW, 나이키, 삼성, 애플 정도만이 이를 달성했다.

컨셉타이어 'Green Hive'로 그랜드슬램 달성

넥센타이어는 최근 미국 IDEA(International Design Excellence Awards)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그랜드슬램을 위한 마침표를 찍었다. 수상작은 바로 경제성과 환경친화성을 중시하는 컨셉타이어 'Green Hive'. 창의성, 혁신성에서 주목을 받았고 '기존 타이어 개념의 틀을 깨며 새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4대 대회 중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린 곳은 IF 디자인 어워드다. 독일 국제 포럼 '디자인 하노버'가 주관하는 이 대회는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도 포함된다. 이 대회에서 당사는 UHP Summer 제품인 'N8000'과 UHP Winter 제품인 'Winguard Sport'를 출품해 각각 본상을 거머쥐는 성과를 거뒀다. N8000은 고속주행성능에 초점을 맞춰 조종안정성과 조종응답성이 뛰어난 제품으로 청상아리를 모티브로 해 환경친화적으로 디자인됐다. Winguard Sport는 남극의 빙산의 본질적 특성을 디자인에 반영한 제품으로 겨울철 운행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찬사를 받았다. 올해는 N'fera SU1 본상을 추가로 수상했다.

이듬해인 2012년에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 센터가 개최하는 60년 전통의 Reddot 디자인 어워드에서 'N9000'으로 본상을 받았다. N9000은 번개 형상의 'Z'타입 디자인으로 구현돼 날렵하고 세련된 라인으로 최상의 그래픽력을 실현함으로써 고속 주행에서도 안전한 드라이빙을 제공한다.

또 2013년에는 같은 제품으로 일본의 G-Mark 디자인 어워드를 따냈다. 이 대회는 일본 디자인진흥원(JIDPO)에서 주관하는 일본 최고 권위의 디자인 시상식으로 일본 디자인진흥원(JIDPO)에서 주관하고 있다. 이 수상은 국내 타이어 업계 최초의 본상 수상으로 하나의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다.

넥센타이어는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며 디자인 어워드 그랜드슬램을 위한 마침표를 찍었다.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따낸 결실

3개 어워드를 휩쓸었지만 그랜드슬램을 향한 넥센타이어의 질주는 멈추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남은 대회인 미 IDEA 디자인 어워드 본상을 거머쥐기에 이르렀다. 수상작인 GreenHive는 수명과 연관된 트레드 부분만을 지속적으로 보충(리필)하여 사용하는 차세대 혁신형 타이어다. 환경친화적으로 제작된 것은 물론 고객의 입장에서 꼼꼼히 따져 사용성과 경제성을 강조했다.

사실 넥센타이어는 세계로 뛰어들기 전 국내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를 통해 이미 디자인 경쟁력을 검증받았다. 2002년부터 국내 Good Design 부분에 매년 이름을 올렸고 지식경제부장관상 및 조달청장상도 두 건씩이나 수상한 바 있다. 2008년 대한민국 디자인경영대상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아자동차 등과 나란히 시상대에 올랐다. 더 이상 국내에서는 탐낼만한 게 없었고 결국 그랜드슬램이라는 큰 목표를 세우고 차지하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참으로 긴 여정이었다. 세계 디자인 산업계의 최정상에 선 이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치고 있다. 이는 제품 디자인팀 구성원들의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열망, 정성 그리고 끈질긴 도전 끝에 이룬 쾌거다.

이런 성과를 이루도록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은 대표이사 이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올린다. 향후에도 디자인 어워드는 물론 다른 부분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㉞

넥세니가 소개하는 타이어테크 이야기.
이번에 방문한 매장은 재능 있는 30대 젊은이들이 모여
있는 타이어테크 문현점이다.



넥세니 대리점 방문기

타이어테크 문현점

매장 안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에 위치한
타이어테크 문현점. 도매와 소매를
동시에 한다는 이곳의 강점은
과감하고 실험적인 판매 전략이다.

어서오세요.
문현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장이
참 깔끔하죠?
천장도 통유리라
더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꽃보다 직원

사장
임동광

타이어테크
문현점 임동광
사장입니다.
평소엔 배부른 곰처럼
느긋하지만
일처리를 할 땐
즉제비처럼 날렵하죠.

부장
은성빈

문현점의
스피커 은성빈
부장입니다.
영업 경력 7년의 화려한 화술로
손님과 소매점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인상쓰며 일할 거 있나요?
항상 웃으며 기분 좋게
일하고 싶습니다.

팀장
권현국

타이어 전문가
권현국 팀장입니다.
무뚝뚝해 보여도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타이어 교체 1인자라
자부합니다.

실장
위민호

스팀담당
위민호 실장입니다.
문현점 네 식구 중 만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타이어 찌든 때도
제 스팀 한방이면 말끔해집니다.



배달 준비 중

타이어테크 문현점이죠? 타이어 배달 주문하려고 하는데요~?

네네. 고객님. 신속하게 준비하여 출발하겠습니다.

변신!!

멋진 신사가 배달하는 타이어 한번 받아보시죠.

오옷, 저렇게 차려입고 배달을 !!

일단 넥타이를 고쳐메고...

놀랄 일이 또 있어요. 차를 잘 보세요.

짜아

안

빠가뻘썩한 스포츠카에 타이어를 싣고 직접 배달을 갑니다. 간지 아이템 선글라스는 기본이죠. 다녀오겠습니다~

수리 중

이 타이어로 말할 거 같으면 최적 승차감을 구현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안정성 향상을 위해...

음~

매장을 찾은 손님에게도 친절하게!

먼저 공기압체크를 시작으로...

꼼꼼

타이어교체와 공기를 빼고

과아

와

우와, 수리까지 잘하니 더 멋있어!

마지막으로 스팀청소로 마무리만 해주면 끝!

끝

젊은 에너지가 느껴지는 타이어테크 문현점은 각각 분야의 능력자들만 모인 알짜 대리점이다. 아직 문을 연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발 빠르고 과감한 임동광 사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금씩 인지도를 넓히고 있다고, 과감하고 신속한 판매 전략이 이들의 특징이라니 손님이 느낀 건 시간문제가 아닐까.⑩



넥센타이어 TV CF 방영

거대 빗방울 속 여유 드라이빙 빗길에 강한 타이어



도로 위에 거침없이 쏟아지는 굵은 빗방울. 드라마틱하게 터지는 물방울 사이로 고급 세단 한 대가 유유히 빗길을 뚫고 나간다. 차분한 드라이빙의 힘. 넥센타이어의 새 TV CF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넥센타이어가 4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TV CF가 톱모델 없이도 소비자들에게 단단히 눈도장을 찍고 있다. ‘빗길에 강한 타이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타이어의 품질을 내세운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광고를 제작한 오리콤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한국형 스쿨 등 급성장수가 잦아진 국내 계절 변화에 따라 빗길 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광고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20일부터 방송된 20초 분량의 영상은 기존 타 브

랜드들이 감성을 자극하는 데 초점을 둔 것과 달리 타이어의 성능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빗길 운전의 위험성을 표현하기 위해 거대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도심에서 여유롭게 빗방울을 피하며 드라이빙을 즐기다 안전하게 제동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넥센타이어 광고는 3월 1일부터 이틀간 인천 송도 신도시의 왕복 8차선 대로에서 이른 아침부터 6대의 살수차를 동원해 촬영했다. 이정구 오리콤 planG 대표는 “타이어는 빗길이나 눈길, 타이어 교체 시 소비자 관여도가 높아지는 제품”이라며 “제품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연출을 통해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④

제품의 장점을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기술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더욱 높였다.





Welcome to 넥센타이어

영화배우 박상민, 창녕공장 방문

지난 6월 9일, 영화배우 박상민이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을 방문했다. 평소 차에 관심이 많은 박상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성사된 이번 행사는 이용용 공장장, 강용구 창녕지부장, 정성광 (창)총무팀장, 박우상 (창)인사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24년 전인 박상민의 데뷔 영화 <장군의 아들> 개봉일에 가진 만남이라 박상민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다는 후문이다.

박상민의 애마는 전 세계에 단 2대에 불과하다는 람보르기니 디아블로 VT6.0. 이 외에도 렉서스, 모하비 등 3대의 차를 소유하고 있어 연예계 소문난 자동차 마니아다. 마침 이날은 넥센타이어 N7000을 장착한 렉서스를 몰고 온 참이었다. 직접 사용해 본 N7000

에 대해 박상민은 과연 어떻게 평할까.

“평소 스피드를 즐기곤 해서 타이어를 고를 때도 신중한 편이다. N7000은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사용한 제품인데 생각보다 정말 괜찮더라. 렉서스 차량 스피드 허용 범위는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겠구나 싶을 정도로 안정감이 느껴졌다. 괜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 탁월한 홍보 전략으로 넥센타이어의 좋은 품질이 저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되었으면 한다.”

품질에 100% 만족감을 표시한 그와 함께 넥센타이어에 대해 더욱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기업 홍보 동영상 시청 후, 정성광 (창)총무팀장의 가이드로 최첨단 자동화 창녕공장 투어가 진행됐다. 넥센타이어 창녕공장은 총 50만㎡(15만 평) 규모로 대량 OE를 문제없이 수주할 수 있고, 완벽한 품질을 자랑하며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한 공장이다. 무엇보다 최첨단 자동화 시설로 생산효율을 높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박상민은 타이어 제조 라인, 완제품 시험 과정까지 둘러보는 과정에서 각종 성능 검사 관련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등 자동차 마니아다운 면모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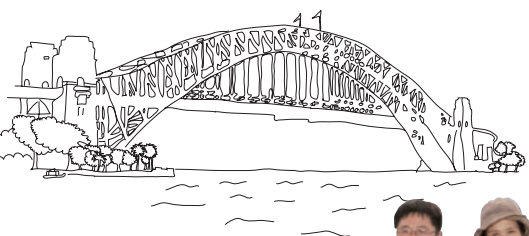
자동화된 창녕공장을 꼼꼼히 둘러본 박상민은 “넥센타이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을 오늘 이 공장에서 찾을 수 있었다. 다양한 성능 검사와 불량을 미연에 방지하는 철저한 품질 관리 과정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창녕공장에서 생산되는 타이어를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넥센타이어의 무궁한 발전을 기대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⑩

탁월한 홍보 전략으로 넥센타이어의 좋은 품질이
저를 비롯한 많은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되었으면 한다.



넥센타이어, 2014년도 장기 근속자 여행

※ 사진의 수집에 어려움이 있어 2, 3, 4차의
호주 여행 사진만을 실게 된 점 양해바랍니다.



30년 장기근속자 – 유럽 여행

품질검사파트 한응연 사원 제품관리계 박윤철 사원

25년 장기근속자 – 호주 여행

생산1팀 이성재 차장 재료파트 김해준 직장, 최해운 직장, 박중우 직장 정련파트 이장호 사원, 김남진 직장, 서관희 직장, 유석만 직장 생산2팀 장정식 차장 가류파트 김광환 사원, 김철수 사원, 허석 직장 PCR파트 손일용 직장 생산관리파트 하영현 직장 공정관리계 안용모 사원 품질검사파트 손병현 직장, 오상윤 직장, 최원대 사원 금형관리파트 송윤오 차장 안전환 경팀 박유만 차장 공장혁신사무국 이승주 차장 전기파트 안용준 직장 고객만족팀 정태배 과장 중아팀 서용호 부장

북부지점 진태언 부장 전주지점 문석기 부장 중부지사 주진섭 부장 영업2팀 이영재 부장 (창)가류파트 이문호 차장 (창)생산담당 조상문 이사 (창)총무팀 정성광 부장 (중)관리부 박시중 부장

20년 장기근속자 – 동남아 여행

(창)인사팀 서진영 직장 UHP파트 정내운 과장, 신혁호 사원 PCR파트 오경준 직장, 김윤택 사원, 임택 사원, 정기훈 사원, 김창수 사원, 허용환 사원, 최주철 사원 정련파트 김성용 사원 재료파트 김영두 과장 전기파트 박태훈 차장 설비보전2파트 전원배 사원 금형관리파트 김정환 사원 품질검사파트 박연진 사원 고객만족팀 정태문 과장 (창)전기파트 송경남 직장 (창)물류운영팀 신창근 차장



서울사무소 임직원, 관악산 등반대회 진행



지난 5월 16일,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에서 임직원 15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관악산 등반대회가 진행되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매년 '한마음대회' 혹은 '등반대회'를 진행하며 임직원들의 단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에 시작된 등반대회는 국기봉을 거쳐 연주암을 오르는 코스로, 하산까지 총 3시간이 소요되었다. 더욱이 관악산은 경기 5악으로 불릴 만큼 초보자에게는 난코스이지만 임직원들은 서로를 독려하고 뒤통수를 도와가며 낙오자 없이 전원 등반을 완료했다.

이에 임직원들은 이번 산행을 통해 평소 업무 현장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사우들을 만나 소통할 수 있어 좋았으며, 두터운 동료애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미국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과 파트너십 체결



넥센타이어가 미국 프로야구팀 '텍사스 레인저스'와 공식 파트너십을 맺고 현지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텍사스 레인저스는 미국 텍사스주 알링턴을 연고지로 하는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서부지구 소속의 구단으로 과거 박찬호 선수가 활약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추신수 선수를 7년 계약으로 영입하며 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팬의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파트너 계약을 통해 2014년 시즌 동안 텍사스 레인저스의 홈구장에 가로 36.27m, 세로 2.16m의 광고판 등을 설치한다. 한편 넥센타이어는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LA 다저스'와 '디트로이트 타이거즈'와의 파트너십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와 동일하게 LA 다저스(2013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는 홈구장의 홈플레이트 뒤 가로 2.8m, 세로 0.8m의 롤링 보드에, 디트로이트 타이거즈(2013 아메리칸리그 중부지구 1위)는 야구장 전광판에 가로 13.72m, 세로 4.7m의 광고를 노출 중이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이번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북미 지역의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사1촌 손 모내기 봉사활동 참가



지난 5월 26일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 임직원 11명이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인 강원도 횡성군 노구소 마을을 찾아 손 모내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넥센타이어 서울사무소는 2011년부터 노구소마을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체결해 4년간 봉사활동 및 관계유지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손 모내기 역시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1사1촌 자매결연 마을의 일손을 돕는 동시에 자연과 하나 되며 임직원 상호 간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더욱이 이번 행사에는 2014 신입사원들도 처음으로 동참해 의미가 있었으며 참가한 사우들은 "선후배 간의 우애를 다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도 느낄 수 있었다"며 참가소감을 전했다.

스페인 대표 자동차 브랜드 'SEAT'에 OE 공급



넥센타이어가 스페인의 대표 자동차 브랜드인 '세아트(SEAT)'에 타이어를 공급한다. 공급되는 자동차는 세아트의 대표 모델 '이비자(Ibiza)'로 스페인, 포르투갈 등 유럽지역에서 높은 호응을 얻으며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뛰어난 조정 안정성을 가진 친환경 고성능 타이어인 N'Blue HD를 공급한다.

넥센타이어는 지난해 폭스바겐의 '폴로'를 시작으로 스코다의 '옥토비아', '라피드' 그리고 이번 세아트의 '이비자'까지 유럽시장에서의 신차타이어 공급 확대로 회사의 브랜드 인지도를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스페인 자동차 성능시험 전문기관 IDIADA와 MOU 체결



넥센타이어가 지난 4월 1일 스페인의 세계적인 자동차 성능시험 전문기관인 IDIADA와 전략적 업무 제휴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IDIADA는 유럽연합으로부터 공인받은 자동차 개발프로젝트 추진 사업을 하는 다국적 엔지니어링 회사이자 자동차 인증시험기관으로, 각종 차량에 대한 다양한 평가 경험과 인프라, 전문적인 테스트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남서쪽 70Km에 위치한 IDIADA 성능시험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시험 평가장으로 약 390만㎡(120만 평)의 부지에 다양한 주행 시험로를 갖추고 있다. 이에 넥센타이어는 IDIADA와 실차 계측 분야, 국제 법규 및 인증시험 분야 그리고 프리미엄 차량에 대한 상세 분석 및 해석 모델 구축 등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제휴를 통해 글로벌 신차타이어(OE) 프로젝트 조기승인 추진과 선진기관의 평가 기술 확보 및 역량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 에센 타이어 전시회 ‘Reifen 2014’ 참가



넥센타이어가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독일 에센(Essen)에서 열리는 타이어 전시회 라이펜(Reifen) 2014에 참가했다. 라이펜 전시회는 유럽 최대의 타이어 및 부품 전시회로 독일 에센 시에서 1960년부터 2년마다 개최된다. 올해는 44개국에서 660여 개의 타이어 및 관련 부품 업체가 참가했다. 넥센타이어는 2층 복층 구조의 전시 부스에서 프리미엄 신제품을 포함한 총 21개의 제품과 7개의 미니타이어를 PCR, SUV/LT, WINTER, OE 등 4개의 ZONE으로 구분하여 전시했으며, 해외 신차타이어 공급 현황과 최첨단 설비의 창녕공장 홍보 영상 등도 전면에 배치했다. 27일과 28일에는 딜러와 언론사를 초청해 N'blue HD Plus, WINGUARD SnowG, WINGUARD WT1 등 세 개 제품의 신제품 발표회도 겸했다. 이들 신제품 외에도 주력 제품인 N'FERA 시리즈, 윈터타이어인 WINGUARD 시리즈 등이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넥센타이어의 기술력과 품질을 유럽시장에 알릴 수 있었다.

‘2014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 후원



지난 4월 1일 넥센타이어가 스피드레이싱 후원 조인식을 체결하고, 대회공식 명칭을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넥센타이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모터스포츠 축제인 스피드레이싱의 메인 스폰서로 9년 연속 참가하게 되었다. 총 5라운드로 진행되는 2014 넥센타이어 스피드레이싱은 지난해부터 매 라운드에 250대 이상의 차량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6일 영암에서의 1라운드를 시작으로 지난 6월 12일, 2전까지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는 승용 클래스와 RV/SUV 클래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차별화 전략 외에도 이벤트, 공연, 레이싱카 체험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하며 가족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중국 ‘2014 베이징 모터쇼’ 참가



넥센타이어가 지난 4월 20일부터 29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2014 베이징 모터쇼(Auto China 2014)'에 참가했다. '베이징 모터쇼'는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시회다. 넥센타이어는 총 21개 제품을 콘셉트(Concept), 신제품(NEW), SUV, 신차타이어(OE) 등 4개의 존으로 구분해 전시했으며 부스 한 편에는 넥센타이어 미래 성장의 심장부인 창녕공장 공정 및 최첨단 설비를 소개하는 존도 마련했다. 프레스데이 행사에서는 언론 매체를 대상으로 중대형 세단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N'FERA AU5'와 SUV용 프리미엄 타이어인 N'FERA RU5 등 2개 제품의 신제품발표회를 열었다. 더불어 비보이, K-POP 커버 댄스 공연 및 포토이벤트, 핀볼, 잭팟 등의 다양한 참여형 이벤트도 진행했다. 이번 베이징 모터쇼 참가를 통해 중국 시장에 넥센타이어의 뛰어난 기술력과 우수한 품질을 알리고 동시에 브랜드 인지도 향상의 기회로 삼아 중국 시장 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빗길에 강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 N'FERA SU1 출시



지난 6월 16일 빗길에 강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인 N'FERA SU1이 출시되었다. N'FERA SU1은 수입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30, 40대 오너드라이버의 니즈를 공략해 성능과 디자인을 모두를 만족시키는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이다. 또한 트레드 블록 강성 최적화로 고속 주행 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에 걸맞은 안정적인 코너링과 핸들링 성능을 제공하며, 3+1 직선 와이드 그루브 적용으로 동급 최고 수준의 빗길 제동력을 갖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N'FERA SU1은 <아우토빌트>와 <오토짜이퉁> 등 권위 있는 자동차 잡지 내 타이어 테스트에서 추천등급(Recommendable)으로 평가된 바 있으며, 세계적 디자인상인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에서 본상을 수상하기도 해 국내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반기 유럽 Dealer Conference 진행

넥센타이어는 지난 5월 스페인 마드리드,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12일 22일 각각 딜러 컨퍼런스(Dealer Conference)를 진행했다. 딜러 컨퍼런스는 당사의 최신 뉴스와 신제품, 마케팅 활동 등을 소개하는 딜러 대상 설명회로, 딜러와 서브 딜러를 함께 아우르는 행사이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SOLEDAD와 주요 딜러 100여 명을 대상으로 딜러 컨퍼런스를 개최해 RU1, RH5 등 SUV 신상품 및 친환경 신상품 N'blue HD plus 등을 소개하고 유럽 내 주력

상품인 SU1의 서킷 드라이빙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는 TPEK TYRE의 주요 딜러 6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재 러시아에서 판매 중인 윈터 타이어들을 소개하는 딜러 컨퍼런스를 진행했다. 넥센타이어는 이번 딜러 컨퍼런스에서 “현지 판매 딜러들과 활발한 토론을 진행하며 각 지역의 세일즈 포인트를 이해, 공유할 수 있었다”며 “관련 마케팅의 강화로 당사에 대한 신뢰도와 품질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Drift Allstars 2014 European Series’ 참가



넥센타이어가 2014년 유럽 최대 규모의 드리프트 레이싱 대회에 참가한다. 드리프트 올스타 2014년 유러피언 시리즈(Drift Allstars 2014 European Series)는 5월부터 9월까지 유럽전역을 무대로 7개국을 돌며 총 7라운드의 경기를 개최하며, 17일 영국을 시작으로 스웨덴,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에서 여섯 경기를 치른 뒤 9월 폴란드에서 파이널 라운드를 치르게 된다. 드리프트 대회는 경주 차량이 곡선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도로 위를 표류하듯이 질주하는 기술을 연출하는 자동차 경기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미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영국과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넥센타이어는 지난 2년 동안 종합우승을 차지한 바 있으며, 올해는 유럽 최대의 자동차 스타일링 브랜드인 에어로킷과 공동으로 드리프트팀을 꾸렸다. ‘팀 에어로킷넥센’은 넥센타이어의 초고성능타이어 ‘N9000’을 장착하고 화려한 드리프트 기술을 선보이며 3년 연속 종합우승을 노리고 있다. 이에 팀의 차량 및 선수 유니폼 등에 넥센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유럽 전역에 제품의 성능을 알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넥센타이어, 2013 고용창출 우수기업 선정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13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넥센타이어가 선정되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10년부터 학계, 연구원, 노사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업규모와 업종을 고려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을 ‘고용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넥센타이어는 사명을 변경한 2000년 당시 960여 명이던 직원 수가 지난해 말 3,800명을 넘어 현재 4,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고용창출 효과는 넥센타이어의 창녕공장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기인한다. 창녕공장은 현재 2단계 증설이 진행 중이며, 중장기적으로 총 1조5,0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또한 단계별 증설을 통해 향후 연간 2,100만개 이상의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이에 창녕공장은 현재 근무 중인 임직원 900여 명을 향후 2,000여 명까지 신규 고용을 늘려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헬로우넥센〉과 通하다

〈헬로우넥센〉담당자와 독자 여러분이 생각을 함께 나누는 코너, N Voice.
이번엔 2014 봄호에 대한 이모저모를 들어보았습니다.

인생이 재미있어지는 아니요 놀이. 세상을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해주어서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칼럼들이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아태팀 서기현** 인생엔 정답이 없다고 하지요. 금번 봄의 오프닝 칼럼 하나가 사우님께 작은 전환점을 선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사우님의 '아니요'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몹시 기대되는데요?

프로야구도 개막했고 넥센히어로즈가 최근 성적이 좋아서 넥센히어로즈와 임직원들이 만나는 코너를 마련하면 어떨까요? 넥센타이어 전 직원들에게 버프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실차평가팀 정진욱** 사우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짧게나마 팀스토리 코너에서 넥센히어로즈 선수들과 만남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선수들과 함께 기념촬영 시간을 가진 유렵팀 사우들, 좋은 추억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즌 중임에도 불구하고 촬영에 흔쾌히 협조해준 넥센히어로즈 선수들과, 섭외에 도움을 주신 마케팅팀 류승렬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 드립니다.

사보가 너무 부산, 서울 위주인 것 같습니다. 창녕공장도 있는데 말이죠. 맛집 소개 등 창녕이나 대구 쪽도 기록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공무공용** 헬로우넥센은 언제나 참여하고자 하는 사우님을 우선으로 섭외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보에 친숙한 양산 본사

와 서울사무소의 임직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다 보니 생겨난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앞으로는 전사를 아우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을호에서는 창녕공장의 모습도 충분히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십여 년 전 군대에 가던 제 모습이 생각나 '아들, 너에게로 보낸다' 어머니 편지 코너가 유난히 기억에 남습니다. **출고관리파트 김동진 대리** 이창호 사우님 어머니께서 직접 연락 주시며 이루어진 코너였습니다. 아들을 아끼는 마음이 어찌나 지극하신지, 담당자도 적극적으로 나서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헬로우넥센은 앞으로도 박인자 어머니의 문화 활동을 응원합니다 ^^

야구체험 코너가 재미있었습니다. 실제 해보고 싶기도 할 정도로 재미있게 잘 쓰였더군요. 이런 체험형 코너를 계속해서 진행해주시면 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보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대리만족도 할 수 있고요. **설계해석팀 강민성 주임연구원** 마침 부산에서 좋은 체험 기회가 있어 RE개발1팀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헬로우넥센은 이러한 문화 회식을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고 이어갈 예정입니다. 팀의 업무도 소개하고 문화 회식도 체험할 수 있는 팀스토리 코너에 참여하고픈 팀은 지금 당장 연락주세요!

'고정관념 타파! 아이디어 상품' 코너가 좋았어요. 생활에 편리하고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도움이 됐습니다. **품질보증팀 서명곡** 우산살이 바깥에 있는 UnBRELLA는 사보 담당자 역시 탐내고 있는 상품이랍니다. 모두 다 판매 중인 상품들이니 기회가 되면 꼭 구매해 이용해보세요.

경남 지역에 가족이 함께 가볼만한 곳이나 문화 체험할 수 있는 곳을 소개해주세요. **품질경영팀 김상기 과장** 이번 여름호에 가깝지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산책지인 범기수원지와 가족단위로 낙농체험을 할 수 있는 내화체험장을 소개해보았습니다. 헬로우넥센은 언제나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타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노는 아이가 성공한다' 코너는 아이를 키우는 아빠로써 참 좋은 정보였습니다.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내도 아이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육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올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글로벌환경안전팀 박지호 대리** 지난해부터 육아와 관련된 코너를 원하시는 사우님들이 많아 올해 Kids Love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만족하시는 듯 해 몹시 기쁩니다. 더 알찬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발로 뛰고 또 뛰겠습니다.



Epilogue

참여해 주세요

〈헬로우넥센〉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무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넥센타이어 홈페이지(www.nexentire.com) 및 페이스북(www.facebook.com/nexentire.korea) 메시지, 엽서 등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 2014년 7월 31일(목)까지
내용 넥센타이어 임직원 가족 현장 30% 할인 (1매 5인)
상품 한화 아쿠아플라넷 일산 입장권
문의 031) 960-8500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2

* 본 쿠폰을 1층 매표소에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쿠폰은 1매 5인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 본 쿠폰은 다른 할인 쿠폰/카드와 중복해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분실 시 재발급 및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 본 쿠폰은 대인 소인을 구별하여 할인이 적용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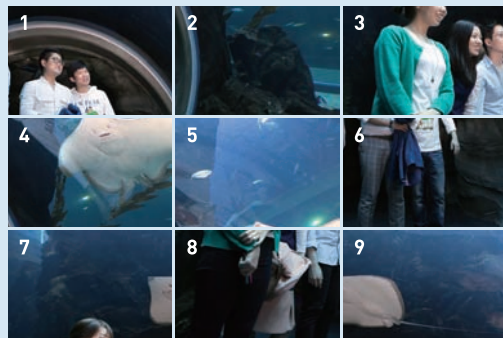
당첨되신 분께는 7월 중으로 개별 연락을 드립니다.
연락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8월 15일까지 아래 사보담당자에게 연락해주세요.
연락이 없을 시 당첨은 무효처리 됩니다.

● 사보담당자
 055.370.5283
 soo0526@nexentire.co.kr



포토퍼즐 맞추기

뒤죽박죽 섞인 사진 조각의 제자리를 찾아 멋진 한 장의 사진을 완성해주세요.



지난 호 정답

2	8	4
7	3	5
6	9	1

퀴즈 당첨자

- 박경혁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 장희지 대구시 북구 고성동3가
- 우도형 창원시 의창구 봉림동
- 김종신 경남 진주시 하대동
- 진영준 경남 진해시 덕산동
- 장미소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
- 한정화 경남 양산시 북정동
- 이종철 충남 세종시 한솔동
- 유경옥 경남 양산시 남부동
- 김재경 부산시 사상구 염곡동

NEXEN 넥센타이어
빗길에 강한 타이어

2014
국가 소비자중심
브랜드 대상

비길에 강한 넥센타이어!

BEST PRODUCT

N FERA
AU5

2013 주목받는 신상품 선정!

N FERA
RU5

2013 주목받는 신상품 선정!

ROADIAN
HTX RH5

2014년 NEW PRODUCT!

N blue eco

연비절감 친환경 타이어!

CP672

美 소비자 권익지 평가 3위!



국내 제조사 중 타이어 구매 추천율 1위
국내 제조사 중 타이어 마모 소비자 평가 1위

“2014 美 J.D 파워 신차용타이어 만족도 조사 (미국 소비자 대상)”

